

Sulwhasoo

VOL.93 AUTUMN 2019

Sulwhasoo

VOL.93

Sulwhasoo

AUTUMN 2019





U: 색이 노랗다 / 이슬기 / 통영 누비 장인 협업
진주 명주 / 195×155×1cm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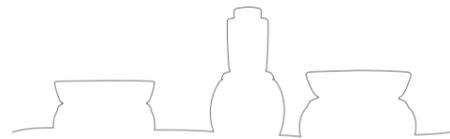
우리는 매일 이불을 덮는다. 하루의 고단함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더러는 허물을 덮어주며, 대개는 행복한 꿈을 꾸게 한다. 인생에서 절반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성스럽고 아름다운 일을 한다. 이슬기 작가가 2014년부터 선보이는 <이불 프로젝트 U>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물인 이불이 건네는 조언과 소통을 담았다. 내용은 익숙한 한국 속담에서 따오고 유틸 넘치는 기하학 문양과 오방색으로 간결하게 표현했다. 속담을 작가의 아이디어로 그려 장인들에게 전달하면 통영 누비장이 한 줄 한 줄 반듯하게 바느질해 이불을 꾸민다. 색색의 진주 명주 조각들에 누벼진 바느질 방향이 달라 이 조각들을 잇는 까다로운 작업은 통영 누비장 조성연 선생의 손을 거쳐 비로소 완성된다. 이불의 짜임에 녹아든 속담의 무늬는 주술의 언어를 담았고, 정성스런 누빔은 간절한 염원처럼 이어진다. 이 꿈꾸는 이불을 덮고 자는 이의 꿈은 얼마나 찬란하고 유쾌할까?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We tuck in a blanket to go to sleep every night. The blanket pats and comforts you after a long, hard day, covers your flaws, and invites you to a happy dream. It performs such a holy and beautiful job for almost half of your lifetime. Artist Seul Gi Lee's <Blanket Project U> in 2014 conveys the advice and messages from this extremely personal and intimate object. The messages are composed of popular old sayings in Korea, while the designs are fun simply expressed with geometric patterns and the five traditional colors of Korea. The sayings are portrayed in drawings, and the pieces are delivered to Tongyeong's quilting masters who sew them together into a blanket. This meticulous piece of quilting is completed by Tongyeong's Quilting Master Sung Youn Cho, as the direction of quilts over the colorful pearly silk pieces is different. The patterns of sayings on the blankets resemble magical spells, and the delicate sewing symbolizes devoted wishes. How splendid and exciting would the dreams be for those who sleep under these blankets?

설화수 헤리티지에 빛나는 인삼의 강인한 에너지
자음생 라인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강화된 인삼 결정체가 피부의 힘을 키워 탄탄하게 깨어나는 피부 활력을
선사합니다. 자음생 라인으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이 실현됩니다.

The new and improved ginseng essence fortifies
the skin's natural regenerating and defense capacities to replenish vitality.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realizes true anti-aging effects.



Sulwhasoo

AUTUMN 2019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귀한 원료를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고,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의 진귀한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어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내면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내면과 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브랜드, 설화수.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피부 균형을 다스리는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한 효능 원료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프랑스까지 전 세계 12개국에 진출, 아시아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offers the ultimate skin solution that treats the skin from within by incorporating modern skin science into legendary ingredients infused with timeless Asian wisdom and presents holistic beauty to restore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The Sulwhasoo brand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pursues beauty reminiscent of nature with precious natural ingredients and delivers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by creating beauty from the inside out. Sulwhasoo globally promote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with the JAUM Balancing Complex™, an optimal blend of five ingredients, carefully selected from more than 3,000 medicinal herbs, Korean ginseng, the legendary ingredient that makes Sulwhasoo's unique formulas even more special, and Sulwhasoo's cutting-edge Bio-conversion Technology™. As of 2019, Sulwhasoo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Asian Beauty Creator, operating in 12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South Korea, Mainland China, Singapore, Hong Kong(China),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the US, Canada and France.

Sulwhasoo

VOL.93 AUTUMN 2019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발행일·2019년 10월 1일(통권 제93호)
발행인·안세홍 편집인·강병영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이응주, 이슬, 전해미)
제품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기아 미디어 02)317-4921 편집·박훈성 디자인·이명보
사진·GURU visual 02)747-6123 시스템 출력·덕일 인쇄·(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펼 치 다

- 08
설화지혜
발그레한 뺨에 깃든 건강한 아름다움
- 12
피부 섬기기
탄탄하게 차오르는 인삼의 생명력
- 16
新 장인을 만나다
속담을 이불에 새겨 꿈길을 함께 걷다
- 22
공간미감
우주와 나, 그 접점을 발견하는 특별한 자리
- 28
건너다
역사의 숨결 속에 흐드러진 아름다움



누 리 다

- 36
설화인
순간마다 정유정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 44
어우러지다
다소곳이 전하는 정성
- 50
설화풍경
그윽하고 찬란하여라
- 54
설화보감
잔을 기울이며 가을을 나누다
- 60
아름다운 기행
바다, 영화를 꿈꾸다
- 66
설화수를 말하다
빛나는 꿈의 피부를 우려르다
- 72
설화공간
영롱한 보석 같은 가을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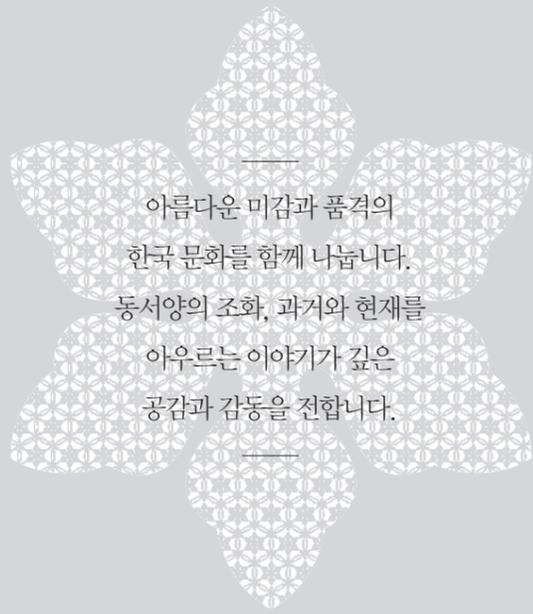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열정과 냉정이 만든 투명한 아름다움
- 82
한국의 멋
떡에 새긴 절실한 소원
- 84
설화애장
‘여백’과 ‘자연스러움’의 에티튜드
- 86
읽다
이어가고 도전하는 예술의 장場
- 92
집 안 단장
삶을 음미하는 유유한 시간



- 94
프로덕트맵
- 98
독자 선물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펼
치
다

발그레한 뺨에 깃든 건강한 아름다움 Healthy Beauty as Reflected on Flushed Cheeks

은은하게 볼을 물들여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고 기품 넘치는 단장을 했던 옛 여인들의 색조화장. 그 속에 담긴 고운 지혜를 들여다본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청결하고 아름다운 몸가짐을 중시했다. 흰색을 숭상해 희고 윤택한 피부를 만들고자 애썼고, 삼국시대부터는 색조화장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미의식이 깊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연지를 짙은 여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신라인들은 연지를 만들어 볼과 입술을 치장했다. 백제는 일본에 화장품 제조 기술과 화장술을 전했다는 기록이 일본의 옛 문헌 <삼재도회三才圖會>에 남아 있다.

색조화장의 첫 번째 단계에는 백토, 진주 가루, 쌀가루, 분꽃씨 가루 등의 '분粉'을 발라 피부를 환하게 정돈했다. 눈썹은 '미목眉墨'이라는 것으로 그렸는데 숯 그을음을 기름에 혼합해 만들었다. 눈썹을 그리고 나면 연지로 뺨을 발그레하게 표현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따르면 연지는 '연나라에서 건너온 화장품'이라는 의미에서 '연지燕脂'로 표기했으며 뺨에 연지를 바르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14~15세 소녀의 뺨이 절로 홍조를 띠는 것처럼 젊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설, 결혼하는 신부의 연지곤지 또한 붉은 연지를 둥그란 모양의 곤지로 찍어 처녀성과 젊

Since the olden times, Koreans appreciated the neatness and beauty of appearance. They worshipped the color white, so they longed to make their skin white and refined. They were also aesthetically aware as there were records of color makeup existing during The Age of the Three Kingdoms of Korea. The tomb murals of Goguryeo portray women with blushers on their cheeks regardless of social status, and the people of Silla produced their own color pigments for their cheeks and lips. An old text from Japan, titled <Samjaedohoe>, states that Baekje transmitted cosmetic production technology and skills to Japan.

The first step in color makeup was brightening the skin tone with powder that was made with white clay, pearl powder, rice flour, or Mirabilis jalapa seed powder. The eyebrows were shaped by using 'Mimuk,' which was soot that was mixed with oil. After shaping the eyebrows, they used Yeonji, the blushers, to achieve flushing looks on the cheeks. According to <Bonchogangmok>, Yeonji was written as '燕脂,' meaning 'cosmetics from the Yan Dynasty.' There are different stories about the meaning of Yeonji on the cheeks. Some say that it is to express youth as a 14-



연보라색 플랫 원형 접시와 볼은 모두 오선주 작가. 자연스러운 붓 자국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분청 차합은 허상욱 작가 by 솔루나리빙. 백색 굵접시는 AREA+. 대리석 마블 트레이는 somini studio. 비정형 분홍색 접시는 정지원 작가. 대나무 차시는 뷰로파피에.

음을 상징하였다는 설 등 다양하며, 붉은색을 싫어하는 악귀를 물리쳐 신부를 보호한다는 의미로도 풀이되었다.

붉은 빛깔이 도는 연지를 만드는 데는 국화과 식물인 잇꽃, 즉 홍화紅花가 주로 사용되었다. 7월경 홍화꽃이 피고 꽃잎이 붉어질 대로 붉어지면 새벽에 꽃잎을 따다. 이를 찢고 즙을 짠 뒤 선선한 그늘에서 천천히 말려 가루를 내어 둥근 환으로 빻어 보관하다가 화장할 때 기름에 개어 쓰는 게 보편적이었다. 가루 상태인 것은 누에고치 집이나 연지 도장에 묻혀 두드리고 기름에 갠 것은 손가락으로 두드려 복숭앗빛 뺨을 표현했다. 그러나 만드는 과정이 번거롭고 홍화에서 추출되는 가루 양이 극히 적어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여염집 여인들은 엄두를 낼 수 없어 선홍색의 주사朱砂 연지나 붉은 고추를 말려 동그랗게 잘라 종이를 덧대어 사용했다. 이 밖에도 백합의 꽃술을 말린 '산단'이나 깎지벌레과의 곤충에서 염료 성분을 채취해 가루로 내거나 환으로 빻았다가 기름에 개어 발랐다. 오래전부터 화장술이 발달해왔지만 화려하거나 과장된 화장은 아니었다. 타고난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에 힘을 쏟았고, 색조는 옅고 은은하고 밍그레하게 혈색을 더하는 정도였다.

설화수의 실란 컬러팩트 역시 자연 유래 색소의 자연스러운 색감과 우아한 색채가 피부에 건강한 생기를 부여하고, 은은하면서 화사한 피부를 선사한다. 한국 전통 공예 기법인 '칠보'로 모란을 찬란하게 표현한 은 수제 함에 담아 '실란 명작 컬렉션'으로 선보임으로써 더욱 귀하고 보배롭다. S

or 15-year-old girl's cheeks that are naturally flushed, while others say that it represents virginity and youth as brides wear red Yeonji in the shape of circles during a wedding ceremony. It is also said that it is worn to protect the bride as it drives away bad spirits that detest the red color.

The Safflower of Compositae was normally used to make red Yeonji. When safflower bloomed and petals developed into a bright red hue around July, they were gathered at dawn. They were crushed, juiced, and slowly dried in the cool shade to make powder that was molded into round balls for storage, and mixed with oil for application on the skin. The powder was applied with a cocoon house or stamp, and Yeonji in oil was dabbed on peach cheeks by using the tips of the finger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make, and it was expensive since an extremely small amount of powder was extracted from each stem of the safflower. It was not affordable for commoners in the Joseon Dynasty, so they used red minerals or dried peppers cut into rounds and placed on paper. They would also apply dried stamen of lilies or pigments derived from coccids in the form of powder or balls dissolved in oil. Makeup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but it was not very elaborate or exaggerated. Women were focused on enhancing their natural beauty, and color makeup was just light and subtle.

Sulwhasoo's Shineclassic Multi Powder Compact also brings healthy vitality to the skin with natural colors and elegant shades for subtle yet radiant skin. 'Shineclassic Masterpiece Collection' applies 'Chilbo,' the traditional Korean craft technique, to handmade covers as an expression of the splendid beauty of peony and as an added value to the product.

실란 명작 컬렉션 [칠보]

한국 전통을 계승하는 장인과 설화수의 협업으로 한 단계 높은 아름다움을 전하는 한정판 럭셔리 컬렉션인 '실란 명작 컬렉션'이 올해는 '칠보' 기법을 담아 보석같이 찬란한 작품으로 선보인다. 국내에서 유일한 칠보 기능 전승자인 노용숙 장인이 직접 제작한 칠보 작품이며 은으로 만든 함에 우아한 모란을 전통 방식 그대로 구현해 표현했다. 은함 옆에는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문양을 새겨 아름다운 가치를 높였고 제품을 사용한 후에 장신구함 등으로 오래도록 활용할 수 있다. 실란 명작 컬렉션에는 인삼꽃, 매화 추출물 등 엄선된 고귀한 원료를 함유한 컬러팩트를 담았다. 베이비, 핑크, 소프트 코랄, 코랄 등 4가지로 구성된 천연 유래 색소의 자연스럽고 우아한 색감이 피부에 건강한 생기를 부여하고 은은한 핏감으로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 톤을 표현해준다. 10월 초부터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한정 판매한다.



찬란하게 활짝 핀 모란을 칠보 공예로 장식하고 옆면에도 모란 문양을 새긴 은함은 실란 명작 컬렉션[칠보] 컬러팩트 by 설화수. 자연적 요소들을 노란색으로 그려 포인트를 준 은함은 이기하 작가 by 아원공방 삼청점 바다 속 수초와 거북을 뚜껑에 장식한 은함은 노인아 작가 by 아원공방 삼청점

탄탄하게 차오르는 인삼의 생명력

The Firmly Established Vitality of Ginseng

피부의 시간을 붙잡아주는 설화수의 핵심 처방은 인삼이다. 뿌리부터 줄기, 잎, 열매까지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찾아낸 인삼의 생명력이 피부의 근본을 바로 세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우리나라 인삼은 효능이 탁월하기로 유명해 영약靈藥으로 숭상되어왔다. <동의보감>에서는 우리나라 인삼을 신이 내린 약초라는 의미로 '신초神草'라 불렀으며, 인삼을 원료로 한 처방이 전체의 18.5퍼센트에 이른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지혜를 품은 한방 화장품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설화수의 시작이 인삼과 함께였음은 당연한 이치다. 설화수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을 출시한 1966년부터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삼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집념과 신념은 설화수가 한국을 넘어 세계인에게 아시아의 지혜를 담은 홀리스틱 뷰티 브랜드로 사랑받게 된 바탕이 되었다. 설화수 50년 인삼 연구의 결정체는 인삼의 뿌리부터 줄기, 잎, 꽃과 열매까지 부위별 피부 효능을 총체적으로 연구해 각각에서 귀한 안티에이징 성분을 찾아 담은 진세노믹스™다. 인삼 에너지의 근원인 컴파운드 K와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설화수만의 특허 받은 기술인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통해 귀한 핵심 성분으로 사용하게 된 것. 이러한 설화수 인삼 헤리티지의 정수는 자음생크림과 자음생 에센스를 통해 펼쳐진다.

Since 1966, when ABC Ginseng Cream was released ahead of Sulwhasoo, Sulwhasoo's study on ginseng has continued for more than 50 years. Its tenacity and faith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Sulwhasoo to be loved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as a holistic beauty brand with Asian wisdom.

The essence of Sulwhasoo's 50-year study on ginseng is Ginsenomics™. Skin efficacies are comprehensively studied from the roots of ginseng to the stems, leaves, flowers, and berries to extract the most precious anti-aging substances. Compound K and Ginsenoside, the essence of ginseng energy, have been enhanced to produce the precious main ingredient through Sulwhasoo's patented Bioconversion Technology. The essence of Sulwhasoo's ginseng heritage has been realized by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and Serum.

The essence of Sulwhasoo's ginseng heritage is captured in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an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With the ginseng-based Korean herbal medicinal anti-aging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which is the essence of Ginsenomics™ after 50 years of ginseng studies and new anti-aging studies, you can experience the next level of anti-aging





자음생크림

인삼의 뿌리와 줄기, 꽃에서 얻은 강력한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노화에 대응해 피부 활력을 제공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이다. 인삼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담아 피부 재생력과 방어력을 강화하여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로 가꿔주는 것은 물론 젊고 활기 있는 이미지 안티에이징 효과도 제공한다. 피부 상태와 선호하는 제형, 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오리지널과 라이트 두 가지 타입으로 인삼의 강인한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다. 60ml 25만원

자음생에센스

농축된 인삼 에너지가 담긴 혁신적인 미세 캡슐이 피부 탄력 지지구조를 강화해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로 가꿔주는 인삼 캡슐 에센스. 인삼 뿌리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에서 얻은 귀한 성분으로 피부 속부터 팍 차오르는 탄력을 선사하고 주름을 개선해 매끈하고 또렷한 리인을 선사한다. 작고 섬세한 캡슐이 피부에 닿는 순간 흡수되어 인삼의 풍부한 영양감을 채워주고 끈적임 없는 촉촉함을 전한다. 50ml 20만원

자음생크림은 50여 년 인삼 연구를 집대성한 진세노믹스™와 새로운 안티에이징 연구의 결정체로 한층 강화된 안티에이징 케어를 경험할 수 있다. 인삼 뿌리와 꽃에서 각각 얻은 귀한 안티에이징 성분은 피부 재생력과 방어력을 높여 스스로 되살아나는 피부 활력을 선사한다. 자음생크림은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 노화감정 존을 끌어올려 이미지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제공해 피부 효능을 넘어 진정한 홀리스틱 뷰티를 완성한다. 개인의 피부 상태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배려도 돋보인다. 풍부한 제형과 은은하면서도 묵직한 인삼 향을 담은 오리지널, 산뜻한 질감과 인삼 잎과 꽃의 신선한 향을 느낄 수 있는 라이트 등 두 가지 타입을 선보인다.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 탄력은 자음생에센스가 책임진다. 인삼의 뿌리부터 잎과 줄기에서 얻은 농축된 인삼 에너지와 생명력으로 피부 탄력 지지구조를 강화해,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강력한 주름 개선 효과를 제공한다. 인삼의 농축된 에너지는 혁신적인 미세 캡슐인 진세니스피어™에 담았다. 인삼씨 오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열매가 맺히듯 스스로 생성되어 효능 성분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고,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설화수만의 진귀한 기술이다. S

care. Precious anti-aging substances from ginseng roots and flowers enhance the skin's natural regenerating capacity and defense mechanism, regenerating itself with vitality.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enhances the aging emotion zone that determines the first impression on your face, and provides the image of an anti-aging effect to complete the concept of true holistic beauty beyond skin efficacies. It comes in two versions, so you can choose what is right for you according to your skin condition and taste. The original version is rich in texture with the subtle yet dense scent of ginseng, while the light version has a refreshing texture with the fresh scent of ginseng leaves and flowers.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is responsible for the firm and smooth resilience of the skin. The concentrated energy and vitality of ginseng from its roots, leaves, and stems strengthen the supporting structure of the skin for a powerful wrinkle correcting effect that will not be agitated at every angle. Ginseng's concentrated energy is captured in the innovative capsules called Ginsenisphere™. It is Sulwhasoo's invaluable, original technology that is naturally generated to preserve active substances in the ideal condition, penetrating the skin quickly just as berries are born during the process of producing ginseng seed oil.



자음생에센스
사용법
How to Us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St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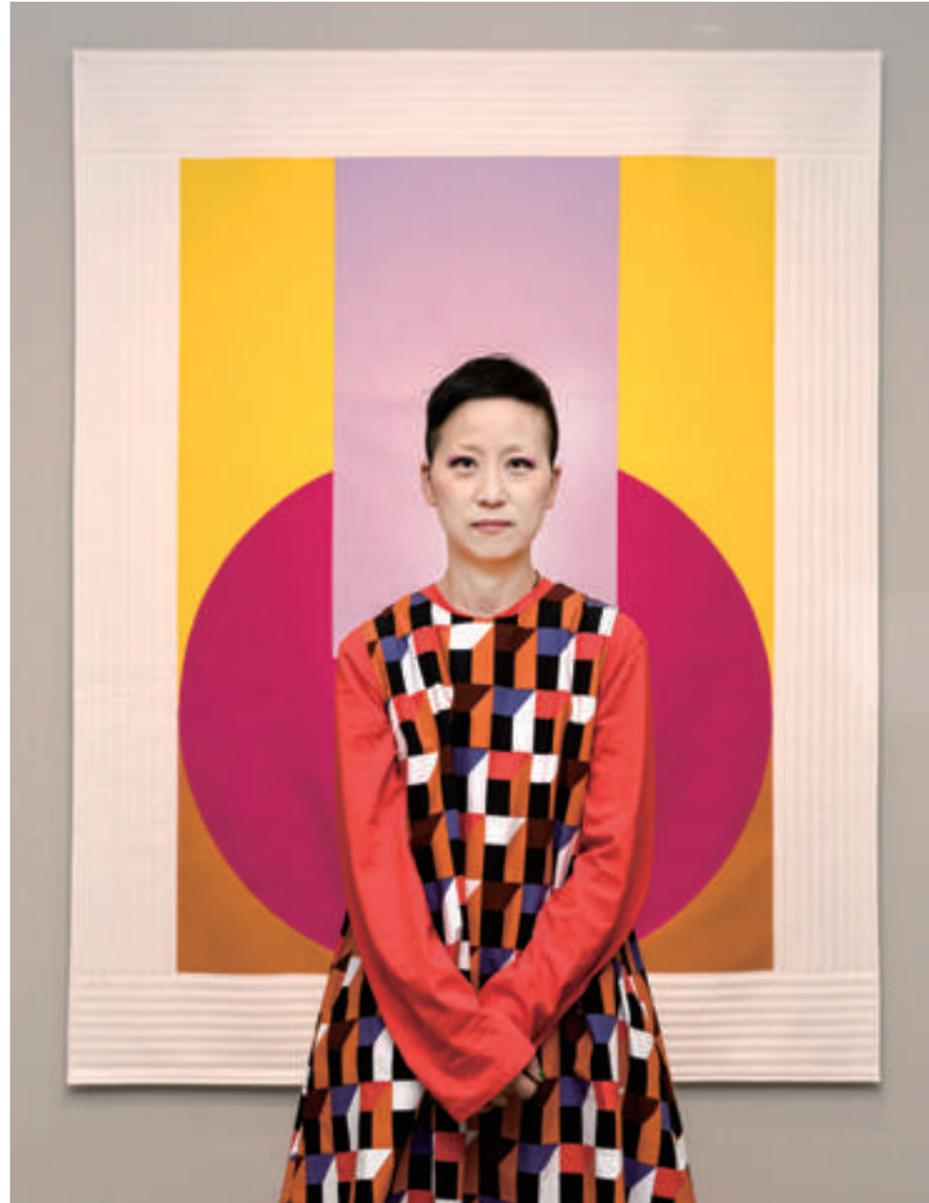
아침·저녁 세안 후, 윤조에센스 혹은 자음생수 다음 단계에서 자음생에센스를 양볼, 이마, 턱 순으로 나누어 펴 바르고 수직의 느낌으로 끌어 올리듯 바른다.
After cleansing in the morning and evening, apply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on the cheeks, forehead, and chin and spread the serum in an upward vertical motion.

Step 2

턱에서부터 이마로 힘껏 올려주고, 이마에서 양쪽 턱 끝까지 부드럽게 쓸어준다.
Spread upward from the chin to the forehead and sweep smoothly from the forehead to both chins.

Step 3

목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고, 턱 라인을 따라 귀밑까지 쓸어 올리며 마무리한다.
Sweep from the bottom up the neck and finish by sweeping just below the ears along the chin line.



속담을 이불에 새겨 꿈길을 함께 걷다

Seulgi Lee

이슬기 작가

27년째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그는 특유의 해학적 시선으로, “기하학적 패턴과 색의 힘을 통해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원초적으로 되돌려놓는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런 그가 전통 공예와 언어 체계의 접목에 주목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글 최태원 사진제공 갤러리현대

작품 <이불 프로젝트 U>를 보면서 속담을 전통 공예와 결합해 시각화한 발상이 참신했습니다. 2002년 이후 전시회 참여로 한국을 오가면서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것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오색 영롱한 색깔의 통영 누비이불도 그중 하나였어요. 프랑스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싶어 찾았는데, 1980~90년대에 봤던 건 더 이상 안 만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보려다가 작품으로까지 연결된 것이죠. 형식은 다르지만 속담과 전통 공예는 특정 민족의 지혜와 정서가 담긴 문화란 점에서 동질성을 갖습니다. <이불 프로젝트 U>는 그 두 문화의 연관성을 재해석하고자 한 것입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합니다. 색깔이나 구성을 임의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만 보편적 이불 문양 자리에 공동체의 염원이 담긴 속담을 넣으면 이불을 덮고 자는 이의 꿈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의 이전 작품들이 이미 존재하는 물건들을 비틀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의 작업이었다면, <이불 프로젝트 U>는 인류학에 관심을 갖게 된 저를 대신해 ‘말하는 이불’이 된 셈이죠. 또한 통영의 누비 장인들과의 협업 역시 메시지 전달에 큰 도움이 되었고요.

Your <Quilt Project U> had an innovative idea of visualizing old sayings through traditional craft. Flying back and forth to Korea to participate in various exhibitions since 2002, I saw statements differently that I always be with when I grow up. One of them was the colorful, quilted blankets of Tongyeong. I wanted the old version for my French friends, but they said that the designs from the 80s~90s are no longer made. I wanted to make my own, and it has led to my work. The format is different, but old sayings and traditional crafts are homogeneous, considering it is culture that reflects the wisdom and emotions of a group of people. The <Quilt Project U> reinterpret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cultural features.

Please elaborate how you work. I did not randomly choose the colors or layouts. However, I thought it might affect the user's dreams if some sayings that reflect a community's wish were added to the patterns of an ordinary quilt. My previous work was about delivering messages by distorting objects that already existed, whereas the Quilt Project becomes a

작품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자 하셨는지요? 인간은 삶의 절반 가까이를 이불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는 순간은 현실과 꿈의 경계선에 있기도 하지요. 이 지극히 개인적인 동시에 독특한 순간과 공간에 공동체의 문화인 속담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물 안 개구리'에서 튀어오르는 몸뚱이는 아래위로 누비고, 벌어진 작은 다리는 수평으로 누웠어요. 또한 우물 밖으로 나가고자 열망하는 개구리는 고동색으로 표현했고, 개구리가 있는 공간은 녹색을 썼습니다. 즉 색과 누빔의 방식에도 속담이 주는 메시지를 담고자 한 것이죠. 물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인들에게는 생소한 속담이지만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의 상황을 설명하면 곧 이해를 하더라고요.

〈죽어가는 언어를 부르는 프로젝트〉와 연관된 인터뷰에서 “바구니를 짜는 과정과 방법이 언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풀어서 설명해주신다면요? 어떤 인류학자들은 언어의 시초를 불의 발견과 연결시킵니다. 만약 인간이 숲을 태우는 번개를 관찰한 뒤, 추위와 조리를 위해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면 모닥불 형태였을 것이고, 모닥불 근처에 모인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죠. 멕시코 오악사카 북부지방에 위치한 산타마리아 익스카틀란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바구니를 짜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언어가 만들어진 과정과 바구니를 짜는 과정이 동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곳이 인상 깊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200여 명이 사는 작은 산골마을이지만, 16세기 전에는 10만 명이 살던 대도시였고, 그들만의 언어가 있었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고유 언어인 익스카틀란어가 사라지고 있죠. 익스카틀란어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 네 분 정도밖에 없어요.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 중 하나죠. 제 〈바구니 프로젝트〉는 그곳의 전통 바구니가 연상시키는 풍경이나 단어를 소멸되고 있는 익스카틀란어로 이름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성한 바구니 두 개에 좀 더 작은 바구니를 수평으로 달아 이름을 'Sala kwashungu la shhũ itzie ske'로 지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땀은 젊은 여인'이란 뜻이죠. 그들

'talking blanket' on behalf of me in terms of anthropology. Collaboration with the quilt masters of Tongyeong also helped me convey my messages.

What was the message you wanted to convey? People spend about half of their lives with a blanket. At the moment they were tucked in a blanket, they are on 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dream. I wondered what it would be like to add the old sayings that were shared with the entire community to an extremely personal and unique moment and space. For example, the hopping body for 'A Frog in a Well' was quilted from the bottom, while the open legs were quilted horizontally. Also, the frog that was longing to leave the well is brown, while the space is green. I wanted to contain the messages of the sayings in the colors and the quilts.

At the interview related to 'The Project Calling for Dying Languages,' you said, "The process and method of weaving a basket is similar to how a language is made." Can you elaborate on this? Some anthropologists relate the origin of languages to the discovery of fire. If people started making fire to fight the cold, and cook food after observing a lightning that burned down the forest, it was probably in the form of a bonfire where people gathered and they would have started conversations with one another. I once visited a village called Santa Maria Ixcatlan that is located to the north of Oaxaca, Mexico. I saw people there weaving baskets together, and I thought that the process of developing a language might be similar to weaving a basket.

I feel like you had an impressive experience there. It is a small village with about 200 people, but it used to be a great city with 100,000 people before the 16th century, and they had their own language. The native language of Ixcatlan is disappearing. Only about four people can communicate in Ixcatlan now. This is one of the endangered languages.



오랜 시간 한 물건을 만들어온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전통, 공동체, 사람과 물건의 관계를 이룰기 작가만의 시선으로 탐구한다. 〈이불 프로젝트 U〉는 통영 누비 장인 〈바구니 프로젝트 W〉는 멕시코 원주민 〈나무 체 프로젝트 O〉는 프랑스 나무 체 장인과 협업을 통해 완성하였다.



〈나무 체 프로젝트 0〉는 프랑스에서 사용되던 원통형 용기인 '부아소'를 제작하는 장인과 함께했다. 체 안쪽을 나누고 높게 설치해 관람객이 작품을 아래에서 위로 쳐다볼 수 있도록 했는데 체 안은 '키, 투, 티, 푸' 등의 한글 모음과 닮았다.

의 전통 공예품과 사라지는 언어를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이불 프로젝트 U〉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전통 공예 장인과의 협업을 빈번하게 시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모로코 리프(Le Rif) 지방의 산골마을 아인부스릭(Ain Bouchrik)에서 할머니와 했던 작업이 생각납니다. 모로코 수도 라바트(Rabat)에 있는 아트센터 '아파트22(apartement 22)'의 초대로 일 년 동안 다섯 차례 방문하면서 모로코 북부 산악에서 신석기 시대 모양의 도기를 만드는 여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고장에서 전통적으로 만드는 토기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도기의 원형이라고 할까요. 유약을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가마에서 굽는 대신 당나귀 똥과 짚을 섞어 말려서 둥글고 평평하게 만든 판을 같이 태워 굽더군요. 그때의 인연으로 그런 친환경적이고 전통적인 도기 제작을 누구나 배울 수 있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My 'Basket Project' is naming landscapes or words associated with traditional baskets through the Ixcatlan language. For example, I added a smaller basket to two combined baskets, and named it, 'Sala kwas-hungu la shhüützieke.' It means 'a young lady with neatly braided hair.'

You are often attempting to collaborate with traditional craft masters.

Do you have a special episode? I remember working with an old lady from Ain Bouchrik, a mountainous village in Le Rif, Morocco. The traditional earthenware they made was very special. It was the archetype of porcelain. They did not use any lacquer, and they baked it with a flat, round board made by mixing and drying pony poop and hay instead of baking it in a kiln. Since then, I have been thinking about a way for anyone to learn how to make porcelain in such an eco-friendly and traditional manner.

이번 〈설화수〉 매거진 표지에 실린 작품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썩이 노랗다'란 제목의 작품으로 돌아나는 썩은 아래위 수직으로 누비고 나머지는 올라오는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해 수평으로 누벼서 대비시켰습니다. 통영의 누비혼 공방 정숙희 대표가 준비해주시면, 누비장 조성연 선생께서 누빔 방향을 맞추는 어려운 작업을 하여 나온 작품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전시는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알고 싶습니다.

이곳 프랑스 사람들이 모두 바캉스를 떠났을 즈음인 9월 20일 브르타뉴 지방 대도시인 렌느의 아트센터 '라 크리에(La Crie Centre d'Art Contemporain de Rennes)'에서 있을 개인전 오픈을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 만들어야 하는 작품이 많아서 힘드네요. 프와투 지방 북서쪽의 민요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간의 작업이 공예와 구전문화의 접목이었다면, 향후 언어의 생성과 공동체의 접점에 좀 더 접근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S

Can you introduce the work on the cover of <Sulwhasoo Magazine>?

It is titled 'The Sprout Is Yellow,' and I contrasted the growing sprout by quilting it vertically and the rest horizontally to emphasize the sprouting movement. It was completed after a skill-requiring process of aligning the quilts by Master Sung Youn Cho when it is laid out by Sook Hee Jung, the owner of Nubihon, Tongyeong.

I would like to know when your upcoming exhibition would be, and how it would be like.

I am working on a private exhibition at La Crie Centre d'Art Contemporain de Rennes in Bretagne on September 20. I have to make many new pieces for it. The project is based on the folk songs of northwestern Poitou. If all the past works combined craft and oral culture, I wanted to make an approach to the creation of languages and the contact point of communities for the next work.

우주와 나, 그 접점을 발견하는 특별한 자리

HEALING STAY KOSMOS

힐링스테이 코스모스

해와 달의 궤적을 형상화한 그 독특하고 아름다운 외관부터 거대한 우주의 흐름을 연상케 한다. '질서정연한 우주'란 뜻을 지닌 그 이름처럼, 힐링스테이 코스모스(KOSMOS)는 우주와 세계의 기운, 이치를 구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김용관, 이종근





울릉도로 여행을 가볼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기차를 타고 또 험한 파도를 뚫고 한참 배를 타는 고된 여정뿐 아니라, '3대가 턱을 쌓아야 쾌청한 울릉도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다. 무사히 섬에 갔다 해도 돌아오는 뱃길이 막힐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실행을 위해 굉장한 용기와 행운이 필요한 여행지. 울릉도는 그런 곳이었다.

막상 도전을 하니 운이 따랐다. 울릉도로 가는 쾌속선은 파고가 조금 높았지만 별문제 없이 바닷길을 질주했고, 배를 따르는 돌고래 떼까지 볼 수 있었다.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배가 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처음 보는 이국적인 풍광에 압도되었다.

경상북도 동북단 동해상에 위치한 울릉도는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섬이다. 깎아지른 절벽이 즐비한, 송곳 하나 들어갈 틈 없이 격렬한 산세다. 해안일주도로 50킬로미터 내내 이어지는 거대한 기암절벽과 기묘한 형상을 한 용암 덩어리 그리고 질푸른 원시림이 어우러져 '자연 그 자체'를 주장하는 듯하다.

이러한 울릉도에 힐링스테이 코스모스가 있다. 250만 년 전에 화산이 폭발하여 뾰족한 송곳처럼 치솟은 추산(송곳바위) 맞은편, 먹먹한 바다를 바라보는 벼랑 끄트머리에 아트막이 서 있다. 위치도 위치이거니와 그 첫인상이 강렬하다.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곡선이 유기적으로 이어져 마치 거대한 암모나이트처럼 소용돌이 모양을 그리고 있는 듯하다. 보는 시점에 따라 한가운데 점을 향해 응집하는 것 같기도, 온 방향의 바깥을 향해 발산하려는 듯하기도 하다. 그 새하얀 모습이 푸르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눈부시다.

여섯 개의 날개가 소용돌이치는 모양의 건물은 버틀러 서비스가 포함된 풀빌라 형식으로 운영하

Located off the northeastern coast of Gyeongsangbuk-do, Ulleungdo Island was created by volcanic activity in the East Sea. It features countless sheer cliffs, and, at first glance, the island seems like an impenetrable fortress. If you travel along the 50 km-long coastal road, you will see an endless panorama of massive cliffs with unique rock formations, chunks of hardened lava, and a lush primeval forest. The entire island is a "pristine, natural reserve."

In terms of accommodation options, Ulleungdo Island is home to "Healing Stay Kosmos." It sits across Chusan Mountain (Songgot Bawi), near the edge of a cliff overlooking the vast sea. Shaped like a sharp ice pick jutting out from the sea, Chusan Mountain was created by a volcanic eruption 2.5 million years ago. Almost as impressive as its surroundings is the first impression of Kosmos' compound. Its buildings feature curves that are not typically found in modern architecture, creating a shape that resembles the spiral pattern of a giant ammonite shell. Depending on your perspective, the entire compound looks as if its buildings are congregating to a central point or dispersing into the world. The white-colored buildings shine brightly against the cerulean blue sky and sea.

Of particular note is the Kosmos (universe) building, which is shaped like a maelstrom with six wings verging on a single central point. It is a pool villa with full butler service. The other building featuring seven guest rooms with convex ceilings is called the Terre (earth) building. All together, Healing Stay Kosmos is where the universe meets the earth in the middle of the vast sea. Architect Kim Chan-jung (Professor of Architecture at Kyunghee University), who built Kosmos, or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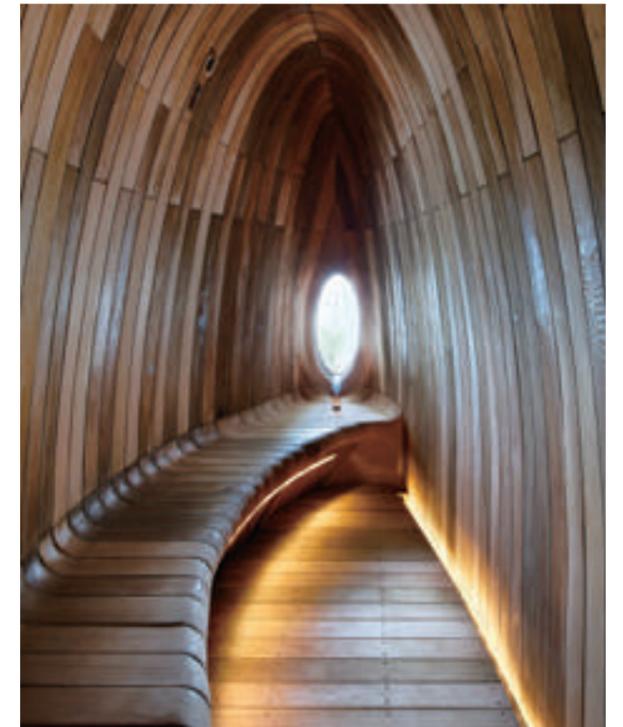
기운생동하는 건축을 담당한 김찬중 건축가는 울릉도의 자연환경과 천지의 기를 조화시킨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월페이퍼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최고의 호텔로 선정되었다.

는 '코스모스(KOSMOS, 우주)'동이고 울룩불룩한 지붕이 일곱 개의 객실을 품고 있는 건물은 '테레 (TERRE, 지구)'동이다. 우주와 지구가 망망대해를 곁에 두고 고요히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코스모스를 설계한 김찬중 건축가(경희대 건축학과 교수)는 울릉도의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천혜의 자연이 이룬 '명당'의 기운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고자 했다. 또한 우주와 지구의 자연 현상을 관조하는 천체의 도구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의 바람은 오롯이 이 땅에 안착하여 지금 코스모스로 태어났다. 자연과 닮고 자연을 담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수직을 배제하고 곡선을 들었다. 그래서인지 건물 안에 들어서면 아늑한 아늑함이 느껴진다. 무엇이든 네모진 디지털의 세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일까?

숙소에 짐을 부리고 정원으로 나선다.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너른 잔디밭을 뽀족하게 치솟은 추산이 굽어보고 있다. 형형색색의 구름과 파도가 만드는 그림에 넋을 놓았다가도, 추산의 시선에 자꾸 눈을 맞춘다. 까마득한 세월이 만든 그 겹겹의 바위와 주름이 그렇게 만든다. 코스모스 정원에 있는 두 개의 링체어는 각각 양과 음을 의미한다. 양의 링체어에 앉아 바다 너머로 떨어지는 태양을 바라보거나 음의 링체어에서 송곳봉에 걸린 달을 느낄 때면, 양과 음의 기운이 온몸에 충만하게 차오를 것이다. 그 자연의 순환 안에서 평온함을 찾을 때, 비로소 힐링이 완성된다. 야생의 신비를 아직 잃지 않은 울릉도를 여행하고 그 자연에 녹아들 듯 끊임없이 소통하는 코스모스에 머무는 것은 무척 특별한 경험이었다. 애초에 가졌던 두려움과 걱정은 이미 저 먼 우주를 향해 던져졌다. S

힐링스테이 코스모스

주소 경북 울릉군 북면 추산길 88-13
 홈페이지 www.thekosmos.co.kr
 전화 054-791-7788



inally designed the compound as a bowl that could collect the “auspicious energy” of Ulleungdo Island without disrupting the natural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he wanted Kosmos to become a celestial tool through which people could observe natural phenomena. Kim was able to apply his designs and aspirations in building Kosmos as it stands today. In particular, he eliminated right angles (which did not exist in nature). Instead, Kim used curves to make sure the entire compound could blend in with its natural surroundings and capture the energy of the indigenous environment. Maybe this is why you feel instantly snug like being at home when you enter either building at Kosmos. Perhaps, removing the right angles and rectangles that dominate today’s digital world could help you relax.

Once I put my luggage down in my room, I walked out into the garden. The sharp Chusan Mountain overlooking a wide-open grassy lawn led onto a small beach.

Inside Kosmos’ garden, there are two ring chairs, each representing “yin” and “yang.” If you sit in the “yang” ring chair and watch the sun setting over the sea or if you sit in the “yin” chair and watch the moon hovering near Songgotbong Peak, you will feel both the “yin” and “yang” energies filling up your entire body. The moment you find tranquility inside that natural cycle of “yin” and “yang” is the moment you truly begin to heal yourself.

My trip to Ulleungdo Island, a pristine island retaining all the wonders of nature and the wild, combined with my stay at Healing Stay Kosmos, which allowed me to interact with nature at every turn and let me become almost one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as a genuinely exceptional experience. As for the fear and anxiety I had before setting off, I cast them off into a faraway universe while I was on the island.

곡선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건축물은 뒤로 신비로운 송곳봉, 앞으로는 푸른 동해 바다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역사의 숨결 속에 흐드러진 아름다움
Beauty Spreads through the Breath of History

3000년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빠르게 진화하는 중국의 수도 북경. 설화수가 사랑하는 도시, 설화수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베이징에서 아시아의 지혜는 격이 다른 아름다움으로 펼쳐진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서티스톡



중국의 심장에서 피어난 생기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거대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핵심은 바로 수도 베이징이다. 찬란한 황궁과 만리장성의 압도적인 위엄은 스스로 '중심'으로 인식해온 중국의 수도다운 면모를 드러낸다. 무려 800여 년 동안 수도로 자리를 지키며 전통이란 틀 속에서 새로운 멋과 맛을 이끌며 기대와 설렘을 선사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혼재하며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고 전 세계에서 모인 유능한 인재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결과물을 쏟아낸다. 세계 각국의 건축 디자이너들이 각축을 벌이듯 즐비한 멋진 건축물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베이징을 상징한다. 냉전 시대 무기공장이었던 '다산쯔 789예술구'를 중심으로 끓어오르고 있는 중국의 현대미술은 세계 미술인의 주목을 받으며 베이징을 한층 더 아름답게 채우고 있다. 이처럼 짙은 역사와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베이징에서 설화수의 행보 또한 눈부시고 찬란하다. 2011년 3월 중국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00호점을 돌파하며 설화수의 진정성을 인정받아왔다. 한국의 귀한 한방 원료와 첨단 과학 기술이 어우러진 설화수의 진심이 닿은 중국의 심장부, 베이징은 아름다운 생기로 가득하다.

Vitality blooming in the heart of China

The heart of China, charmed by a thousand-year history but undergoing massive changes and development, is its capital city, Beijing. The overwhelming dignity of splendid palaces and the Great Wall is representative of its pride as the 'center' of China. For about 800 years, it stood high as the capital of China, and introduced new trends and tastes within the frame of tradition to fulfill expectations and bring excitement to the world. It has achieved enormous growth amidst the blend of socialism and capitalism, as talented minds from around the world are constantly generating new outcomes. The array of beautiful structures, competently constructed by world-class architects, symbolizes rapidly changing Beijing. The contemporary art of China is boiling over in 'Dashanzi 789 Art District,' which used to be a weapon factory during the Cold War, making Beijing even more attractive while drawing many artists around the world. Sulwhasoo's entry in Beijing, the city of rich history and diverse charms, is likewise remarkable. After opening its very first store in March 2011, its 100th store opened in 2016 in recognition of Sulwhasoo's authenticity. Beijing, the heart of China enriched by the faithfulness of Sulwhasoo's precious Korean herbal medicinal ingredients and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is now filled with excellent vitality.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도시 자체로서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 중국의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동과 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다.





베이징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 성안 Shuang'an Counter
- 혜이웨이 Cuiwei Counter
- 푸싱먼 픽슨 Fu Xing Men Counter
- 한광 Hanguang Counter
- 왕무징(따로우) Wangfujing Counter
- 신세계 NewWorld Center Counter
- 진원연사 Jinyun Yansha Counter
- 신광천지 Shin Kong Place Cou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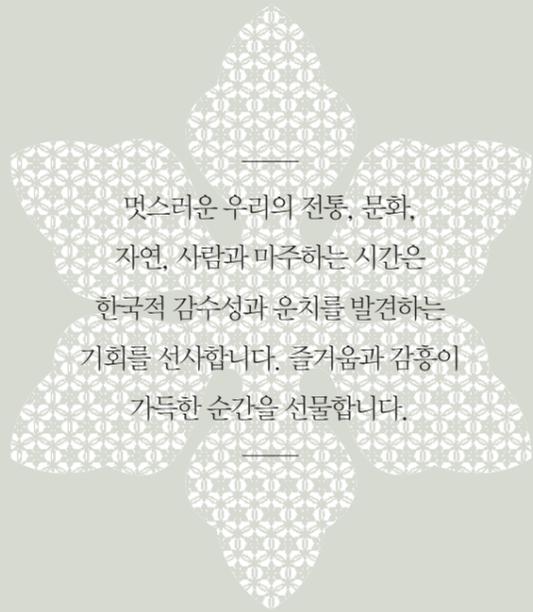
최고의 럭셔리 경험을 선사하는 설화수의 위용

지난 8월에는 중국 최고의 상권인 북경 서단西单 내 '베이징 한광' 매장이 오픈해 설화수가 선사하는 최고의 럭셔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 매장 중 처음으로 5.5세대 디자인을 적용하여 리노베이션한 것. 세계 최대 명품 시장인 중국에 들어서는 매장답게 럭셔리 카운슬링 존을 마련해 프라이빗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등 럭셔리 존이 특별하게 꾸며졌다. 매장 전체를 아우르는 우아한 골드 컬러와 그윽하고 깊은 조명은 설화수 브랜드 철학과 기술에 대한 신뢰를 더한다.

설화수는 베이징을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마켓에서 아시아의 지혜를 전파하며 위상과 명성이 확고해지고 있다. 2004년 홍콩을 통한 첫 글로벌 진출 이후 2015년 싱가포르 랜드마크 지역인 '캐피톨 싱가포르'에 100번째 글로벌 매장을 냈고, 불과 4년 만에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강후이 형룽광장'에 300번째 글로벌 매장을 오픈했다. 이곳은 세계적인 권위의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하는 상하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설화수 헤리티지 원료와 최고 수준의 혁신적인 기술을 전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필두로 한 중국에서 설화수는 진정한 한국 명품의 가치와 품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S

Sulwhasoo's magnificence presented by unprecedented high-end experience

Last August, the 'Beijing Hanguang' store opened in Xidan, Beijing, the largest commercial district in China, offering the highest level of luxury available. It is the first global store that applies the best and the newest design version 5.5 of Sulwhasoo. Since it is located in China, the largest market for premium designer brands in the world, it offers an independent luxury counseling zone for private services. The graceful gold ties the space together, while abundant lighting adds trustworthiness to the brand's philosophy and technology. Sulwhasoo is consolidating its dignity and reputation in various global markets, including Beijing, while spreading the wisdom of Asia. The first global store in Hong Kong opened in 2004, and, in 2015, the 100th global store at 'Capitol Singapore,' the landmark area, was established. The 300th global store debuted in 'Ganghuihongguang Square' in Shanghai, the financial capital of China, four years later. It is the leading landmark in Shanghai, featuring the most sought-after premium designer brands from around the world. It is the ideal place to spread Sulwhasoo's heritage ingredients and unmatched, innovative technology. Sulwhasoo will continue to uphold the value and dignity of a true Korean premium brand throughout China, especially in Beijing and Shanghai.



—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

가
미
다

순간마다 정유정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You Jeong Jeong's Story Exists in Every Moment

정 유 정 작 가

새 책이 출간됐다. 서점으로 달려간다. 네모반듯하고 묵직한 것을 가슴에 안는다. 이제 기다렸던 것을 펼칠 차례다.
호흡을 가다듬는다. 그래야 한다. 소설 <진이, 지니>의 주인공 진이가 그랬듯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기 위해 맥박수를 115에서 145에 맞춰야 한다.
멈출 수 없을 게 분명하다. 결국 한 방에 해치우고 말 것이다. 빛나는 이야기꾼 정유정의 소설이니까.

글 이재영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놓치지 않은 꿈을 끝내 이루다

열 살 유정이가 부르면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장터 서커스에서 만담을 듣고 온 후부터 유정이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쏟아냈다. 게을러서 찢어지게 가난한 흥부네 자식 열이 구멍 낸 명석 하나를 옷 삼아 입고 다니며 변소간에 몰려갔다는 대목에서 아이들은 배꼽을 잡았다. 공놀이나 뽀박질보다 더 신나는 게 있단다. 여섯 살에 입학해 동생 같던 유정이는 단숨에 스타가 됐다.

이야기 대장은 자연스럽게 글쓰기 선수가 됐다. 지역 백일장을 휩쓸며 반드시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엄마는 딸이 의사가 되길 바랐다. 총명하고 반짝이던 첫아이, 귀하고 소중해서 더 단단하고 강하게 키운 딸. 너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세상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이 살아라. 엄마는 그러기 위해 전문 직업을 가졌으면 했다.

“그래서 간호학과에 간 거죠. 문과에 가겠다고 선생님들께 떼쓰면 엄마가 학교에 와서 절대 안 된다고 다시 이과에 남겨놨어요. 내가 원하는 걸 못 하게 해서 슬펐지만 감히 대들진 못했죠. 엄마가 목숨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사랑 앞에 굴복한 거죠.”

꿈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다. 포기하면 잊게 돼. 그러니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국문과 교수님의 당부였다. 교양 수업으로 들었던 소설 수업, 주제는 ‘얼굴’. 무엇이랄도 좋으니 나의 얼굴을 표현하라는 백지 시험이었다. 앞뒤를 이야기로 뽀뽀하게 채운 시험지를 보고

She finally realizes the dream that was never forgotten

All the kids in town dashed to gather around 10-year-old You Jeong whenever she called them. Since watching a show at a circus, You Jeong poured her out with fun stories. Kids burst into laughter when she told them how the 10 lazy and poor kids of Heungbu's family shared a hay rug that had holes as a cape, and they all had to go to the toilet together. It was amazing to be doing something more fun than a ball game or simply running around. You Jeong entered school at age six, but she became the star of her school right away.

The master of storytelling naturally grew up to be a fantastic story writer. She won all of the local composition contests, and dreamed to become a writer. However, her mom wanted her to be a doctor. She was an intelligent and brilliant first child. She was raised to be tough and strong as much as she was precious and invaluable. Don't forget how precious you are in your own life. Don't cave in to any pressure around the world. Thus, her mom wanted her to be a specialist.

“That is why I majored in Nursing. I was frustrated because I could not do what I want to do, but I could not dare confront her. I knew my mom loved me as much as she loved herself. I submitted to her love.”

Don't give up on your dreams. If you don't give up, you will realize it sooner or later. If you give up, you will forget about it. So, always keep your dreams in your mind.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said so. She took a course on novels for her general studies. The topic was ‘my

교수님은 전과를 권했다. 너는 글을 써야 할 것 같구나. 불가능한 꿈 앞에서 유정은 펄펄 울었다.
 “공모전에 열한 번 떨어지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쉽게 얻은 기회가 아니어서인 것 같아요. 만약
 처음부터 문과에 가고 문학을 전공했다면 금방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저는
 기필코 해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이뤄내겠다고 마음먹었죠.”
 결국 엄마는 권하지 않았지만 딸은 그토록 원했던 작가가 됐다. 그냥 작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간을 순식간에 훔쳐내는 최고의 작가가 됐다.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도저히 한눈팔
 수 없는 소설의 주인이 됐다.
 오래전 어린 유정의 곁으로 모여들던 동네 아이들이 그랬듯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그게 신이 나 그녀는 최선을 다한다. 새벽 세 시에 일어나 글을 쓰고 매일 세 시간 운동을
 한다.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의라고 믿는다.

삶의 연료가 되어줄 이야기

이번 소설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이자 평생의 트라우마인 엄마의 죽음을 떠올리며 시작했다. 딸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3년간 투병하던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했다.
 “<진이, 지니>를 통해 처음으로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을 통해서 삶
 의 의미를 짚어보고, 삶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가늠하려고 했어요.”

face.' She had to write anything about her face on a blank sheet of paper for a test. She filled the
 entire sheet, front and back, with her story, and the professor suggested a transfer, telling her, "You
 should be a writer." You Jeong burst into tears because it was a dream she thought was impossible.
 "I did not give up even after failing in the contest 11 times, because there were no easy opportunities.
 If I was able to major in Literature from the beginning, I might have given up quickly. But I wanted
 to do it no matter what because of the difficult circumstances. I promised myself that I will pursue it."
 Her mom did not approve at first, but she finally became a writer. She was not just a writer, but
 she was the best at stealing people's attention. She became the author of a novel that kept read-
 ers captive from the moment they open the book until the last page.

A novelist who writes stories that can fuel lives

The latest novel started out with a memory of her mom's death, an unhealed scar and a trauma
 in her life. Her mom stayed at the hospital where she was working for three years, and spent
 the last three days in the Intensive Unit.

"I talked about my mom for the very first time through <Jiny, Jinnie>. A story of life and death. I
 wanted to address the meaning of life through death, and measure the meaning of death through life."
 She was actually getting ready to write a story about 'the people trapped at sea.' But as she was near-





원래 '바다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자료 조사가 마무리되었을 즈음 마지막으로 읽은 책의 한 구절이 심장에 박혔다. "시간의 어떤 순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말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생과 사를 넘나들던 엄마의 3일 밤낮 속으로 빨려들어 갔다. 초창기 작품 스타일로 돌아간 듯 따뜻하고 몽클한 새 소설은 그렇게 시작됐다. "세상에 할 말이 생기면 그 말을 해야 하는 게 작가잖아요. 힘들지만 사는 게 옳은 것이라는 것. 견디거나 버티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는 게 옳다는 것. 진이의 죽음을 통해 이 시대 실패한 청년 민주가 그것을 깨우치듯 우리가 알았으면 했어요. 이번에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작가에게도 죽음은 늘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삶의 의지가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걸 이제 잘 안다. 인터뷰 끝에 작가는 고백하듯 말했다. "소설 <28> 집필 당시 암 선고를 받았어요." 비로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잉태된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고 많은데 하필이면 왜, 지금. 절망스러웠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약해지지 마라. 누구에게도 기대지 마라. 어머니의 오랜 가르침이 정신을 깨끗하게 붙잡아줬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서늘한 마음으로 그저 글을 썼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도 썼다. 이야기를 토해내는 것이야말로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었다. 7년이 지난 지금 무탈하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서 비로소 지난 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시간이 있듯, 우리의 어떤 시간에는 정유정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그 시간을 위해 작가는 죽음의 두려움을 밀어내고, 창작의 고통을 껴안으며 오늘을 산다. 고마운 일이다. <진이, 지니>를 다시 펼쳐본다. 치열한 삶의 연료가 되어줄 책, 맥박이 다시 뛰다. S

ly finished with her research, a line from the last book she read remained in her heart. "Nothing exists at certain moments of time." It was a statement of a British thinker, Bertrand Russell. When she saw that sentence, she was swirled into the three days and nights during which her mom struggled between life and death. Her imagination stretched out of control, and new stories sprang out. That is how her new, warm, heart-touching story, which reminds us of her earlier tone of voice, began. The writer has always feared death. But she now knows that her devotion to life gives her the strength to win. At the end of the interview, she made a confession. "When I was working on the novel, <28>, I was diagnosed with cancer." I am barely doing what I really want to do, and there are so many stories to write. Why now? She was in despair, but she did not let it show. Don't be weak. Don't depend on anybody. Her mother's years of lessons kept her strong. She did not tell anyone. She just kept on writing cold-heartedly, even when she was undergoing radiotherapy. But she did not stop. Pouring out stories was the way how You Jeong Jeong stayed alive. Now, She can barely talk about the past, that is has been seven years form there, knowing she is doing fine. Like there is time when nothing exists, You Jeong Jeong's stories exist at certain times of our lives. For the time, the writer pushes away the fear of death, and revels in the agony of creation today. We have to be thankful. I read <Jiny, Jinnie> again. It is a book that fuels my fierce life. My pulse is beating again.

메이크업 단아(글로에) 헤어 이진(글로에)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모노톡시(1644-4268), 에스카다 · 에스카다 빈티지가운(02-3444-1708), 스톤헨지(02-3438-6055), 커먼유니크(1688-9308), 캠티클라인(02-6905-3628)

다소곳이 전하는 정성

나태주 시인은 선물에 대해 "받는 것은 될수록 줄여서 받고, 주는 것은 될수록 늘려서 주리"라고 노래했다. 주는 것을 늘리는 방법은 크기가 큰 선물이 아니라 마음을 차곡차곡 담는 것일 터. 예로부터 전통 문양은 소원과 기원을 전하는 그림 언어로 선물의 품격과 가치를 높였다. 고운 마음은 문양에 고이고이 깃들여 깊고 큰 선물이 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리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 1 섬세하게 장식한 '모란당초 상시훈례함'은 이영옥 전통자개 명장 by 진주셀. 2 한국 전통 나전함을 모던한 패턴으로 재해석한 'Modern Times 한뼘'은 여비진 옷칠 스튜디오.
- 3 베이지색 옷칠 컵은 이종구 작가 by 북촌 소방공방. 4 옷칠 동주전지는 박성철 작가 by 아원공방 삼창점.
- 5 호박색 양단 보자기는 호호당. 6 꽃 모양 치마상은 양병용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7 꽃과 새 문양이 조각된 도자함은 박래현 작가 by 뷰로파피에. 8 나전으로 '일월오봉도'가 그려진 나주반은 아리자인. 9 자개, 흙, 천, 참쌀을 재료로 옷칠 작업한 그림 '유월의 숲'은 박수이 작가 by 수이57아틀리에. 10 한지에 분체, 석채, 아광 인료로 작업한 'White Peach Blossom'은 서하나 작가.
- 11 꽃을 수놓은 보자기를 한지로 재해석한 포장지는 지희승 스튜디오 한지라이프. 12 12각 소반은 양병용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13 화조도 자개 이층장은 아리자인. 14 둥근 흑유 화병은 김진완 작가 by 뷰로파피에.
- 15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작은 소반을 모티브로 만든 옷칠 사천첩은 이종구 작가 by 북촌 소방공방. 16 분홍색 모시 보자기는 호호당. 17 겨자색과 백색 향아리는 김진완 작가 by 뷰로파피에.



마음을 담은 문양

감사한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선물을 고르는 일이 고민이라면 전통 문양이 새겨진 아이템에 주목해보자. '의미의 장식'으로서 다양한 뜻과 기원을 담고 있는 문양으로 선물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봉황, 박쥐, 거북, 사슴 등 상서로운 동물과 국화, 연꽃, 소나무 등의 식물은 복과 장수를 의미한다. 네모나 원을 겹겹이 포개어 표현한 기하무늬도 장수를 축원한다. 물고기 문양은 잘 때도 눈을 뜨고 있어 항상 정진하고 경계하라는 의미와 입신양명, 일을 많이 날기에 다산을 뜻하기도 한다.

왼쪽 페이지 | 1 봄 식물이 실크스크린으로 프린트된 보자기 백은 조명희 작가. 2 흑색 모시 보자기는 호호당. 3 복을 기원하는 창호 문양을 원형 패턴으로 담은 자카드 토트백은 서밀하 작가 by calm and slow. 4 조각 천을 이어 만든 '강물고기' 쿠션은 모노컬렉션. 5 채상 바구니는 서산정 장인 by 솔루나리빙. 6 핑크 누비꽃 복주머니는 보량. 7 모란 문양의 근대 자수를 모티브로 작업한 실크 방석은 모노컬렉션. 8 십장생 문양이 새겨진 실크 사각 방석은 모노컬렉션. 9 나전 산수문을 모티브로 실크 위에 금박 기법으로 입힌 청색 쿠션은 서밀하 작가 by calm and slow. 10 조선 백자의 호탕하고 아름다운 선을 문양으로 프린트한 백자호 리넨 쿠션은 모노컬렉션. 11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 거북을 실크 원단으로 제작한 문진은 모노컬렉션.

오른쪽 페이지 | 직사각 채상 트레이는 서산정 장인 by 솔루나리빙. 2 한지에 옷칠한 삼단 천합은 이종구 작가 by 북촌 소방공방. 3 와인잔 형태의 왕골 소품은 강화도화문석. 4 가을 단풍 컬러로 옷칠한 삼단 도시락 합은 여비진 옷칠 스튜디오. 5 녹색 채상 소반은 서산정 장인 by 솔루나리빙. 6 복福 자가 새겨진 채상 트레이는 서산정 장인 by 솔루나리빙. 7 푸른색 옷칠 찬기와 민트색 옷칠 밥그릇은 이종구 작가 by 북촌 소방공방. 8 원 조각들이 원 모양 바느질로 이어진 여의주 문양의 무지개보는 정은진 작가. 9 왕골 반진고리 수납함과 미니 사각합은 강화도령화문석. 10 색동 보자기는 정은진 작가. 11 기쁨의 상징인 나비 문양을 나전으로 장식한 원형 트레이는 이영옥 전통자개 명장 by 진주셀. 12 옷칠 타원 트레이는 이종구 작가 by 북촌 소방공방. 13 은 티스푼은 모두 아원공방 삼청점. 14 대나무 옷칠 컵은 성광명 작가 by 아원공방 삼청점.



왼쪽 페이지 1 사선으로 나전과 컬러를 배색한 자개 화병은 아리자인 2 십장생 나전칠기 병풍은 이영옥 전통자개 명장 by 진주셀 3 분청모란문 패턴의 한지 포장지는 지화승 스튜디오 한지라이프 4 삼베에 옷칠한 녹색 사방반은 이종구 작가 by 북촌 소방공방 5 노란색 삼각 주머니는 이창숙 작가 by 아원공방 삼청점 6 갑사 예단보는 호호당 7 보라색과 연두색 천으로 감싼 품격 높은 선물 박스는 KODF갤러리샵 8 민트색 원형 옷칠 트레이와 주황 원형 접시는 이종구 작가 by 북촌 소방공방 9 백색 미니 화병은 AFEAT 10 비정형 높은 굽 트레이는 조은숙갤러리 11 가구 클립 '연화'는 허대춘, 안이환 장인 작품으로 예울.

오른쪽 페이지 1, 4 천연 염색 명주 조각보 '추억'과 '가을'은 모두 이미지 작가 by 우리옷과규방공예연구소 2 한지 매화 마그네틱과 연꽃 차반침은 정신자 작가 3, 5 자연사수문 패턴의 생기 넘치는 박스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설화수 홀리데이 리미티드 윤조에센스, 설화수 홀리데이 리미티드 퍼펙팅쿠션 6 기하 무늬를 채상으로 엮은 트레이는 서산정 장인 by 솔루나리빙.



전통을 넘어 일상을 아름답게 채우는 문양

한국 전통 문양은 이상적인 삶에 대한 기원을 넘어 특유의 예술성과 아름다움을 갖췄다. 고려시대에는 화려한 색과 미세한 표현을,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 아래 단색으로 은은하게 표현된 문양이 크게 그려졌다. 전통 문양은 현대 공예 작가들에게 이어져 오늘 우리의 바람과 기원이 새겨진 공예품으로 아름다움을 뽐낸다. 설화수도 땅과 하늘, 바다와 숲을 표현한 모던한 문양이 새겨진 홀리데이 세트를 선보인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선물에 다정한 마음을 담아보자.

그윽하고 찬란하여라

설화수의 실란 메이크업은 한국 전통 공예를 계승한 장인들과의
협업으로 해마다 가치 높은 한정판 에디션을 선보인다.
17주년을 맞은 올해는 '칠보' 공예와 함께 찬란하게 피어난 모란을
담았다.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스테이 비온드'에서 고요하게 놓인
2019 칠보 실란 콤팩트, 컬러팩트를 소개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도움 주신 곳 스테이 비온드

강원도 양양을 찾는 많은 이들이 푸른 바다로 향하지만 스테이 비온드는
청량한 숲에 닿아 있다. 신란한 생각들을 비워내고 몸도 마음도 쉬고 싶을 때
'심' 본연의 시간을 찬찬히 누리고 싶을 때 머물기 좋은 곳이다.
절제의 미학을 품은 건축물 곳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다양한
감도의 빛이 스미고, 깊은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파동은 보드랍게 머문다.
공간의 서사는 양양의 소박한 자연과 함께 소란스럽지 않은 꾸밈으로 이어져
그윽하고 순수한 시간을 선사한다.





일곱 가지 보석이 피어나다

칠보 공예는 금속 표면에 다양하고 독특한 색상의 유약을 입혀 700~900도의 고온에서 불에 의해 완성하는 전통 공예 기술이다.
 꽃 새 등의 다양한 문양이 일곱 가지 보석의 영롱한 빛으로 그려져 '칠보七寶'라고 이름 불리는 아름다운 공예다.
 설화수의 2019년 실란은 국내 유일의 칠보공예 전승자 노용숙 장인과 함께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석모란도' 그림을 칠보로 피워냈으며
 실란 콤팩트는 골드 빛 바탕에 붉은 모란꽃이 은은하고 그윽하게 만개했다. 실란 콤팩트 9g x 2 18만원
 하단의 컬러 그라데이션 장식이 독특한 라운드 거울은 크래프트콤바인



고귀한 꽃, 만개하는 복

모란은 '꽃의 왕'으로 칭송과 사랑을 받았다. 풍성하고 화려한 꽃잎은 부귀와 풍요를 상징해 예로부터 왕실과 궁궐 장식에서부터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두루 그려졌다. 붉은 꽃은 액을 막아준다고 믿어 혼례 때 입는 활옷과 병풍은 모란으로 꾸몄다.
 설화수의 17번째 실란은 구름처럼 풍성하게 핀 모란을 찬란한 빛깔의 칠보 공예로 표현해 한국 전통 공예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한다. 실란 컬러팩트의 용기는
 푸른빛 바탕에 화사하고 우아한 분홍 꽃을 표현해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실란 컬러팩트 9g 18만원
 두 개의 타원형이 연결된 디자인의 나무 트레이는 크래프트콤바인

잔을 기울이며 가을을 나누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좋은 술이 많았지만 요즘 우리는 가깝게 즐기지 못했다. 가을 감각까지 더해진 주안상과 함께한
그윽한 풍미와 향취를 느껴보자. 낯선 전통주는 익숙한 우리 술이 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요리&스타일링 김보선(로쏘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전윤정



왼쪽 페이지 기와 문양을 모티브로 한 3D 프린팅 소반 '디 소반 시리즈'는 류종대 작가. 흙의 물성을 자연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다만, 잔, 주병은 모두 이경한 작가 by 포터리밍. 선이 있는 백자 화병은 김연지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청자 와인잔은 이세용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오른쪽 페이지 천연 탄산이 샴페인 같은 청량감을 선사하는 손막걸리는 복순도가. 보라색 무늬 접시는 이경한 작가 by 포터리밍.

막걸리와 에피타이저
육회 누룽지 카나페



재료

누룽지 70g, 육회용 쇠고기(홍두깨살 또는 우둔살) 60g, 메추리알 7개, 배 1/5개, 어린잎채소 · 포도씨유 적당량씩, 검은깨 약간

(육회 양념) 간장 2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 마늘 · 설탕 1작은술씩

만드는 법

1 누룽지는 큼직하게 부수어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른 뒤 노릇하게 튀긴다. 2 육회용 쇠고기는 채 썰어 볼에 넣고 육회 양념을 넣어 고루 버무린다. 3 배는 얇게 채 썰고, 어린잎채소는 맑은 물에 씻어 물기를 뺀다. 4 메추리알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한다. 5 튀긴 누룽지 위에 육회, 배채, 메추리알 노른자, 어린잎채소를 차례대로 얹은 뒤 검은깨를 뿌린다.

맑고 부드러운 소주
어리굴젓 감태 주먹밥



재료

어리굴젓 2큰술, 감태 1장, 쪽파 1대, 밥 1공기, 간장 2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약간

만드는 법

- 1 어리굴젓은 잘게 썰고 쪽파는 송송 썬다. 2 감태는 사방 5cm 길이로 네모나게 자른다.
- 3 볼에 밥, 간장,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고루 섞은 뒤 한 입 크기로 동그랗게 빚는다.
- 4 감태에 ③의 밥을 올리고 어리굴젓과 쪽파를 얹고, 감태로 밥을 감싼다.

슬깃 향기 더한 약주

더덕소스 곁들인 모듬채소 새우찜

재료

새우 10마리, 브로콜리·미니 단호박 1/3개씩, 버섯(만가닥버섯, 애느타리, 송화버섯 등) 100g, 아스파라거스·그린빈스 3개씩 (더덕소스) 더덕 2뿌리, 잣 2/3큰술, 유자청 1/2큰술, 물 3큰술, 식초 2/3큰술, 설탕 1작은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 1 새우는 수염과 내장을 제거한다. 2 브로콜리는 한 입 크기로 준비하고 미니 단호박은 씨를 제거한 뒤 웨지 모양으로 썬다. 3 아스파라거스는 필러로 섬유질을 벗긴 뒤 7cm 길이로 자르고 그린빈스는 반으로 썬다. 4 김이 오른 찜기에 새우, 브로콜리, 미니 단호박, 버섯, 아스파라거스, 그린빈스를 넣고 15분 정도 찜는다. 5 더덕은 껍질을 깎 뒤 잘게 썰고 분량의 소스 재료와 함께 믹서에 넣어 곱게 간다. 6 접시에 ④의 새우와 채소를 담고 ⑤의 더덕소스를 곁들여 낸다.



왼쪽 페이지 테두리가 있는 백자 사각 접시와 손으로 자연스럽게 빚은 백자 사각 접시는 모두 임명완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꾸밈 없이 흙의 물성이 살아 있는 자기 집은 이경한 작가 by 포터리밍.
오른쪽 페이지 자기 파편이 손잡이로 장식된 종지와 팔각 굽접시는 모두 이택수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비정형의 둥근 달접시는 이능호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황동에 민트 컬러로 옷칠 장식한 오목 접시는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강렬한 향과 빛깔의 진도 홍주

오리로스 꼬치

재료

오리로스 300g, 양파 1/2개, 영양부추 한 줌, 레몬 1/3개, 포도씨유 적당량,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오리로스는 소금을 뿌려 밑간 한다. 2 양파는 한 입 크기로 썰고, 영양부추는 5cm 길이로 자른다. 3 꼬치에 오리로스와 양파를 번갈아 꽂은 뒤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노릇하게 굽는다. 4 접시에 영양부추를 깔고 구운 오리로스 꼬치를 얹은 뒤 레몬즙을 뿌린다.



왼쪽 페이지 타원형 굽집시는 조은샘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투명한 저그와 핑크색 투톤 화병, 핑크색 잔과 반투명한 잔은 모두 박선민 작가 by 포터리밍.
오른쪽 페이지 기와 문양을 모티브로 한 3D 프린팅 소반 '디 소반 시리즈'는 류중대 작가. 브라운 컬러의 와인잔은 금은영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백색 꽃볼은 조은샘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베이지 컬러 옷칠 손잡이 은 소재 디저트 스푼은 박성철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떠먹는 탁주 디저트

과일 얹은 이화주



재료

이화주 1/2컵, 플레인요구르트 1컵, 무화과 1개, 반건조 꽃감 1/2개, 견과류 약간

만드는 법

1 볼에 이화주와 플레인요구르트를 넣고 골고루 섞는다. 2 무화과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꽃감은 씨를 제거한 뒤 잘게 썬다. 3 견과류는 큼직하게 다진다. 4 디저트 볼에 ①을 담고 무화과, 꽃감, 견과류를 올려 장식한다.



바다, 영화를 꿈꾸다

Busan & Cannes

부산 & 칸

영화는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우리의 환상이자, 이 세계가 꾸는 꿈이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본 도시는 그 스토리의 배경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언젠가 정말 가본 것 같은 데자뷔를 선사한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서터스톡, 부산국제영화제



매년 10월이면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해 명실상부한 영화의 도시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영화를 좋아하는 한국인이란 부산을 '영화의 도시'라 기억할 것이다. 아름다우면서 특색 있는 부산의 풍경은 그동안 수많은 영화의 배경이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의 영화제이자 국제적으로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도 있다. 도쿄, 홍콩영화제와 더불어 아시아 최대 규모인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벌써 24회를 맞이한다.

매해 가을마다 열리는 풍성한 영화 축제는 영화 관계자뿐 아니라 영화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영화제 초창기에는 남포동 일대에서 영화들이 주로 상영되었는데, 영화 마지막 상영이 끝나는 12시면 남포동 근처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아서 뒤풀이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영화 평론가나 배우, 감독이 길거리에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밤새 영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극장에서 만났던 무비 스타가 바로 옆 테이블에서 나와 같은 메뉴로 식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비일상적 경험. 이 역시 영화제 기간에 맞보는 큰 즐거움이다. 현재 부산국제영화제는 해운대 센텀시티에 자리한 영화의 전당을 중

If you are a movie buff, the first thing that pops into your mind when you think of Busan might be the image of Busan as a "city of cinematography." With a beautiful and authentic cityscape, it has, indeed, been featured as a backdrop in countless movies. Busan also hosts the premier film festival in Korea, the internationally acclaimed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IFF). As one of the largest film festivals in Asia, along with the 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Hong Ko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IFF is celebrating its 24th annual festival this year (the inaugural festival was held in 1996). Today, BIFF screens most films inside or near the Busan Cinema Center in Centum City, Haeundae. The Cinema Street in Haeundae, created by the municipal government in Busan for its cinema industry, features three different zones - "10 Million Audience Film Zone," "Animation Zone," and "Film with Haeundae backdrop Zone" - under the overarching theme of "Play and have fun with film." It gives visitors

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곳에 조성된 영화의 거리는 '영화와 놀고 즐기'란 주제로 '1천만 관객 영화존', '애니메이션존', '해운대 배경 영화존' 등 세 개의 테마 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한국의 흥행 영화 계보를 한눈에 확인하면서 다양한 포토 존과 트리아트, 조형물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파크 하얏트호텔 앞 산토리니 광장은 부산 바다와 어우러진 멋진 풍광으로 영화 세트장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가 만드는 초현실적인 야경이 펼쳐진다. 이 역시 SF 영화 속 미래 도시를 떠올리게 한다. 커췌이 쌓인 오래된 추억과 낯선 미래의 아찔한 이미지가 절묘하게 중첩되는 도시, 부산은 역시 영화적일 수밖에 없다.

영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프랑스 칸(Cannes)을 영화의 도시로 잘 알고 있을 터이다.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더불어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리는 칸 국제영화제가 매해 열리는 칸은 프랑스 동남부 알프마리팀 주에 위치한 국제적인 휴양 도시다. 니스 남쪽 지중해 연안의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쪽빛 바다로 알려져

a chance to check out the list of top-grossing movies in Korea over the years, and enjoy a variety of attractions, including photo zones, trick arts, and sculptures. In particular, the Santorini Square in front of Park Hyatt Busan Hotel looks almost like a movie set because of the sea and its magnificent surroundings. Once the sun sets, the entire Marine City in Haeundae lights up, offering a surreal nightscape. It might remind you of a futuristic city in a sci-fi movie. Busan has the perfect blend of old town charm filled with memories from our past and metropolitan appeal with the image of a brand new city of the future. That is why both the city and cinema are considered a match made in heaven.

Even if you are not a movie fan, you probably know that Cannes in France is famous for its film festival. Along with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Cannes Film Festival is one of the three major film festivals held around the world. Cannes, an internationally renowned holiday destination in the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작은 바닷가 도시 칸은 올해 5월에 열린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우리에게 더욱 친숙해졌다.

1900년대 이후 이미 크루아제트 거리(Boulevard de la Croisette)를 중심으로 고급 호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칸 국제영화제는 1930년대 후반 정치색이 짙었던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개최된 것이 그 시작으로, 제 2차 세계 대전 발발로 중단되었다가 1946년 종전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72회를 맞았다. 칸에서 수상한다는 것은 작품성에 대한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2019년 올해 칸의 주인공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되었다는 것은 무척 영광스러운 일. 대한민국 최초 수상의 황금종려 가치가 더욱 빛난다. 칸 영화제가 열리는 5월, 세계에서 몰려드는 인파에 조용했던 이 해안 도시는 축제의 기운이 넘친다. 영화제 기간 칸 시내의 숙소는 이미 가득 차고 물가도 치솟아, 니스에서 오가며 축제를 즐기는 이들도 많다. 영화를 사랑한다면 영화제가 열리는 '팔레 데 페스티벌 에 데 콩그레 (Le Palais des Festivals et des Congrès)'와 세계적인 영화감독과 배우들의 핸드프린팅이 전시된 '별들의 길(Le Chemin des Étoiles)'은 놓칠 수 없는 장소다. 비록 레드카펫 위를 걷는 화려한 스타가 없더라도, 영화가 주는 미술적인 낭만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S

Alpes-Maritimes province (southern France), hosts the Cannes Film Festival each year. Located further south of Nice, Cannes became a tourist attraction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because of its temperate Mediterranean climate and beautiful, azure-colored waters. The Cannes Film Festival began as a government-funded project in the late-1930s to compete against the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hich had become more politically inclined in its screenings. This year, the Cannes Film Festival turns 72. Winning an award in Cannes means that the film world has acknowledged and recognized the cinematic quality and significance of a particular entry. This is the reason "Parasite," which was directed by Korean film director Bong Joon-ho, gaining the center of attention at the 2019 Cannes Film Festival, became particularly exciting news. When the Cannes Film Festival gets underway in May, the otherwise tranquil coastal city of Cannes becomes pack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If you are a genuine cinema fan, the Le Palais des Festivals et des Congrès and Le Chemin des Étoiles, featuring handprints of world-famous film directors and celebrities, are "can't miss" attractions.

빛나는 꿈의 피부를 우러르다

설화수가 인삼 연구에 쏟은 오랜 집념은 노화에 맞설 수 있는 미의 근간을 이루었다.
인삼의 강인한 생명력이 담긴 자음생 라인을 만난 피부는 절로 밝아져 찬란한 빛을 머금는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고프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자음생 에센스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인삼의 뿌리와 줄기 잎에서 얻은 진귀한
안티에이징 성분과 혁신적이고 미세한
인삼씨 오일 캡슐인 진세니스피어™가
피부 속부터 떠오르는 강력한 탄력을
선사한다. 피부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을 강화하고 잔주름을 개선해 매끈하고
또렷한 피부 바탕을 경험할 수 있다.
조밀하고 풍성한 인삼씨 오일 캡슐은
풍부한 영양을 선사하고 수분감 가득한
젤 타입 에센스가 신뜻하게 흡수되어
인삼의 생명력을 오롯이 전한다.
50ml 20만원

How to use 1회 사용량을 펴명한 후,
양볼-이마-턱 순으로 나누고 영양과
수분이 피부 깊이 흡수되도록 인삼 캡슐을
터트려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바른다.



자음생 크림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몸의 기력이 쇠할 때 보약으로 활기를 채워주듯 피부에는 자음생크림이 보약 같은 활력을 선사한다. 인삼 뿌리에서 찾은 안티에이징 성분이 피부 재생력을 키우고 인삼 꽃에서 얻은 피부 방어력 성분이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피부는 스스로 살아나는 활력으로 채워진다. 얼굴 인상을 좌우하는 노화감정 존까지 관리해 생기가 도는 우아한 표정을 만들어준다. 같은 효능을 담고 있지만 목적하거나 산뜻한 사용감 두 가지 제품(오리지널, 라이트)을 선보여 피부 상태와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60ml 25만원

How to use 아침 저녁 크림 단계에서 적당량 취해 피부 결을 따라 부드럽게 펴 바른다.



자음생아이에센스마스크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ye Serum Mask

인삼 속 수분과 영양 성분을 응축시킨 증삼수™와 인삼 뿌리의 핵심 안티에이징 성분인 캄파운드 K를 담아 눈가에 생기와 탄력을 선사하고 주름까지 케어하는 안티에이징 아이에센스마스크다. 혁신적인 더블 래핑 하이드로겔 시트는 차원이 다른 밀착력과 흡수력, 쿨링감을 선사하고 인대형 디자인이 눈가 전체에 깊은 휴식을 전한다. 8매 715천원

How to use 아이에센스마스크가 고르게 밀착될 수 있도록 코 안쪽부터 얼굴 바깥쪽으로 자국이 눌러 덮은 뒤 20~30분간 휴식을 취하며 사용한다. 마스크를 떼어내고 피부에 남은 에센스를 두드려 산뜻하게 흡수시킨다.

자음생아이크림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ye Cream EX

연약한 눈가 피부에 찾아온 노화와 주름을 홍삼에서 찾은 안티에이징 성분과 인삼의 뿌리와 꽃에서 찾은 재생력과 방어력으로 관리해준다.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들어 탄성력을 키우고 롤링할수록 밀착되어 크림을 피부에 붙인 듯 매끈하고 탄탄하게 마무리된다. 20ml 18만원

How to use 아침, 저녁 에센스 사용 후 적당량을 취해 눈 밑에 3~4개 점을 찍듯이 나누어준 다음, 약지를 이용해 작은 원을 그리듯 흡수시킨다. 눈두덩은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약지를 이용해 부드럽게 펴 바른다. 손가락에 남은 잔여물은 미간 부분에서 이마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완시키며 마무리한다.

왼쪽 페이지 다양한 기하학 모양의 메탈 소재 거울 'The Bent Mirror Series'는 Nina Cho 작가.

오른쪽 페이지 황동과 구리 소재의 기하학 모양 거울 'The Bent Mirror Series'와 웨이브 모양의 명함 꽃이는 모두 Nina Cho 작가.

자음생 페이스얼 오일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Facial Oil

설화수만의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인삼씨에서 추출한 오일을 담아 건조한 피부에 탄탄한 윤기와 생기를 선사한다. 동백씨유, 해바라기씨유, 해송자오일, 미유(참깨유), 행인오일 등 천연 유래 오일의 조합이 깊은 보습으로 피부를 감싼다. 20ml 13만원

How to use 아침, 저녁 자음생크림 전 단계에서 1회 펴핑하여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바른다. 아침 시간에는 메이크업 전 단계에서 소량을 손바닥에 펴 바른 후 얼굴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 흡수시킨다.

백옥 보석 마사지
Luxury White Jade Massager

귀한 백옥을 정교하게 연마해 만든 마사지로 한방 이론에 근거한 지압 효과를 바탕으로 피부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마사지 후 한층 맑아진 피부를 경험할 수 있고, 얼굴부터 목 라인, 팔과 다리 등을 살짝 꼬집듯이 마사지하면 탄력 있는 피부를 완성해주고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황동 소재의 웨이브 모양 거울 'The Bent Mirror Series'는 Nina Cho 작가.

자음생 라인 자음생 라인은 피부의 나이를 잊게 하는 설화수의 슬기로운 비책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인삼의 뿌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잎과 줄기, 꽃과 열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연구를 통해 얻은 진세노믹스™ 성분을 담았기 때문이다. 설화수의 인삼 연구 노하우는 최첨단 피부 과학 기술과 만나 주름과 노화로부터 피부 젊음을 든든하게 지켜준다. 이는 인삼 뿌리에서 찾은 에너지의 근원인 컴파운드 K를 특허 기술인 바이오컨버전 기술로 고스란히 담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인삼 꽃에서는 피부 방어력을 강화하는 Re 성분을 찾았고, 잎과 줄기에서는 피부 탄력을 강화하는 진세노사이드 Rd를 고농도로 추출해냈다. 안정화가 어려운 인삼씨 오일을 미세한 캡슐에 담은 혁신적인 기술인 진세니스피어™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영양감과 보습력을 선사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는 설화수의 인삼 연구 결정체들은 자음생 라인의 다양한 제품에서 핵심 성분으로 사용되며 독보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한다. 인삼의 내공을 고스란히 담아 범접할 수 없는 기운과 탄력을 선사하는 자음생 라인은 스스로 빛나는 꿈의 피부를 완성해주는 설화수의 고귀한 선물이다. S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is Sulwhasoo's sapiential secret to removing any sign of aging on the skin. It contains Ginsenomics™, the outcome of a comprehensive study of all the leaves, stems, flowers, and berries of globally recognized Korean ginseng that used to be thrown away, in addition to popular roots. Sulwhasoo's study on ginseng has utilized the latest skin science technology to defend the skin's youthful appearance from wrinkles and aging. It starts with the thorough penetration of Compound K, the source of energy found in ginseng roots that has been developed with the patented Bio-conversion Technology™. Sulwhasoo found Re in the ginseng flowers which fortifies the skin's defense system, and extracted high-concentration Ginsenoside Rd for resilience from leaves and stems. Ginsenisphere™, the innovative technology used to capture hard-to-stabilize ginseng seed oil in fine capsules, allows long-term nourishment and moisturization. The essence of Sulwhasoo's ginseng studies is comprehensive and complete, playing key roles in the different products of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for unmatched anti-aging solution.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provides the energy and resilience you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through the power of ginseng. It is Sulwhasoo's precious gift to realize the dream of naturally radiant skin.



귀한 칠보 모란 은합을 비롯해 전통 문양을 담은 고급 양단 조각보, 설화수 꽃살 문양이 새겨진 우드 트레이와 유기수저 세트, 고귀한 자색과 녹색 보자기 포장 서비스 등 풍성한 가을 이벤트를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나보자.

영롱한 보석 같은 가을의 선물 The Gift of Fall is like a Lucid Gem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일곱 가지 보석의 빛깔을 표현한다는 칠보 공예와 만난 실란 명작 컬렉션은 찬란하고, 다채로운 선물은 기쁨이 넘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한국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잇고, 현대적인 미감으로 표현하는 설화수의 실란 컬렉션이 17번째를 맞았다. 올해의 공예는 '칠보'다. 일곱 가지 아름다운 보석의 빛깔로 우아한 모란을 찬란하게 표현한 칠보를 99.9퍼센트 은으로 만든 은합 위에 피웠다. 이번 칠보 공예는 국내에서 유일한 칠보 기능전승자인 노용숙 장인이 직접 제작해 그 가치를 더한다. 귀한 칠보 모란 은합 안에는 꽃처럼 화사하고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피부 생기를 부여하는 컬러 팩트를 담았다.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진 인삼꽃과 매화의 추출물로 피부를 화사하게 표현해주며 다 사용한 후 은합은 장신구함 등으로 오래도록 소장할 만한 공예 작품이다. 전 세계 단 3개뿐인 작품으로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그 영롱한 자태를 만날 수 있다. 한국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은 칠보 클래스를 통하여 VIP고객뿐 아니라 일반 고객까지 선착순 예약에 한하여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실란 컬렉션을 제작한 노용숙 장인이 직접 칠보공예를 지도하고, 원하는 컬러로 직접 액세서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아름다운 전통 공예품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복을 짓는 전통 조각보 방식에 과거 특전(엽전에 고운 무늬를 새겨 특별하게 제작한 것)에 새겨진 전통 문양을 담아낸 고급 양단 조각보, 설화수의 꽃살 문양이 새겨진 우드 트레이, 수작업으로 만든 유기 수저 세트에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포장까지 구매 고객 대상 증명되는 다양한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가을을 맞아 자색과 녹색 리미티드 보자기로 구성된 기쁨을 더한 포장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였다. 아름다운 전통 공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전통과 현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벤트와 서비스를 마련하는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아시아의 지혜와 한국의 전통 미감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인 이곳으로 가을 나들이를 나서보자. S

Sulwhasoo's Shineclassic Collection, which is dedicated to succeed the beauty of traditional Korean craft by expressing it with contemporary aesthetics, is celebrating its 17th anniversary. This year's theme is 'Chilbo.' Chilbo, which is composed of seven beautiful gems, is glamorously applied to the graceful peony that blooms on a 99.9% silver case. Created by Master Yong Sook Noh, the one and only official Chilbo successor in Korea, the craft of Chilbo comes with added value. Inside the precious silver case of the Chilbo peony is the color pact that brings vitality to the skin with natural shades that are as radiant as flowers. The extracts of ginseng flowers and plum blossoms have been highly valued since the olden times for brightening the skin, while the silver case is a craft masterpiece that you can keep as an accessory case after use. There are only three of these cases in the world, and you can find its lucid form only at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This is not the only priceless and beautiful traditional craft that you can find at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The premium brocade quilt with traditional patterns inspired by the special tokens of the past (tokens with fine patterns engraved on the surface) sewn on one stitch at a time, the wooden tray with Sulwhasoo's floral lattice patterns, and the set of handmade brass utensils are some of the gifts that are specially designed for the fall. They are available for customers who make purchases with the wrapping service. Moreover, the wrapping service adds dignity to the design with the purple and green limited edition wrapping cloth for the fall.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offers different events and services to share the precious value of beautiful traditional craft and to bridge the tradition and the modern. We invite you to this cultural space so you can enjoy Asian wisdom and the traditional aesthetics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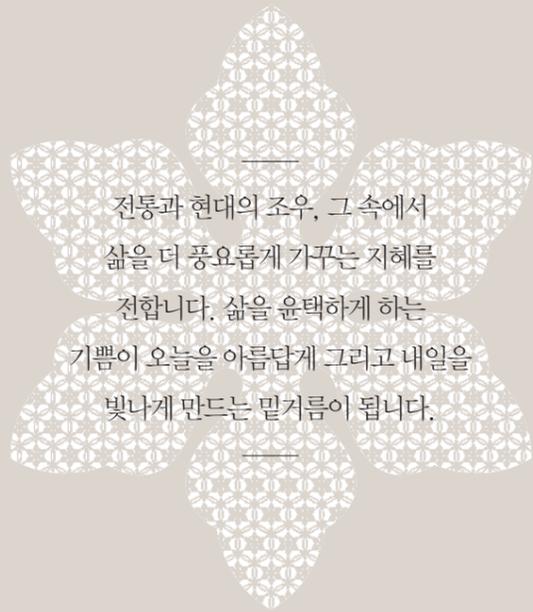
촘촘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전통과



열정과 냉정이 만든 투명한 아름다움

유리 접시 만들기

투명하고 청량하다. 흐르는 유체이자 단단한 고체이다. 다양한 색으로 섬세하게 물들일 수 있으며 형태 역시 자유롭게 변형 가능하다. 유리의 이러한 속성은 공예로 승화되어 아름답고 쓸모 있는 것들로 끝없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오희원 도움 주신 곳 오유 글라스 워크

유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아름다운 재료다. 지난 5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고 특히 지난 200년 동안은 과학 발전의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최초의 유리는 어떻게 발견했을까? 화산이 폭발해 용암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결정화되지 않고 생겨나는 무정질의 고체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초의 유리로 알려져 있다. 이를 '흑요석(Obsidian)'이라 한다. 고대인이 칼이나 화살촉 등을 만들거나 몸을 치장하는 데 썼던 재료다.

인류가 처음으로 유리를 직접 만든 것은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3000년경으로 추정된다. 페니키아의 한 상인이 시리아 해안에서 천연탄산소다 덩어리로 화석을 만들어 솥을 걸고 음식을 끓이다가 주변에 액체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 화석의 재료였던 천연탄산소다의 소다 성분이 주위의 모래와 섞여 유리가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유리의 생성 비밀이 알려진 이후, 기원전 2000년경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등에서 여러 종류의 유리가 장식용으로 사용되었고 흙으로 만든 그릇 표면에 유리 성분의 유약을 발라 내구성을 높이기도 했다. 로마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시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전해진 유리 제조 기술로 실용화 단계를 거쳐 대규모의 유리 제품들이 생산되었다. 로마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 유리 제품들은 프랑스와 독일, 중국, 우리나라

등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이를 '로만 글라스(Roman Glass)'라 한다.

눈부신 유리의 나라, 신라

반짝이고 투명한 유리는 오랜 시간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겨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까지 귀중품의 일종으로 팔찌나 귀걸이 등 장신구로 즐겨 사용했는데, 고려시대 이후에는 사치품보다는 생활용품으로 보편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리공예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삼국시대를 기반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신라 고분에서는 유리 구슬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로 제작된 유리 그릇이 유독 많이 출토된다. 보물 628호 천마총 유리잔, 국보 193호 황남대총 남분 유리병 등이 대표적이고 금관총, 금령총 등 신라시대 왕릉급 무덤들에서 나와 복원된 유리 그릇이 20여 점이다. 이 유리그릇은 대다수 서아시아나 지중해 지역에서 온 것으로 여겨지며 로마제국 시기에 성행한 로만 글라스 후기 모델(4~5세기 말)이거나 로만 글라스를 장식적으로 진화시킨 서아시아 사산조 페르시아(3~7세기)의 '사산 글라스'로 분석된다. 1500여 년 전 유라시아 서쪽에서 먼 길을 건너온 유리 용기들은 동서양의 활발한 문화 교류와 신라의 국제적인 문화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왜 신라 왕릉에 문



준비물 판유리, 유리 가루, 색유리 조각, 유리봉 조각, 유리 실, 유리 가마용 풀, 핀셋, 자, 유리칼, 유리 분리 집게

만드는 방법

- 1 유리칼로 색유리 판을 잘라 원하는 조각을 만든다.
- 2 판유리에 유리 조각, 유리 가루, 유리봉 조각, 유리실 등을 올려 디자인한다.
- 3 유리 가마용 풀로 ②의 디자인대로 조각들을 붙인다.
- 4 유리 소성 가마에서 ③을 구워 디자인된 유리 조각들이 녹으며 유리 접시에 고정되게 한다.
- 5 가마에서 구운 접시를 식힌 후 꺼내 완성한다.

오유 글라스 워크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유리 제품을 디자인, 제작하고 아트워크 라인도 선보인다. 유리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나만의 유리 접시 만들기'라는 클래스를 진행한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사관로6길 28 1층 문의 ouglasswork@naver.com



했는지, 신라인들의 유리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있다. 대다수 수입품으로 보이지만 기원 전후 한반도 유적지 곳곳에서 많은 유리구슬이 발굴되는 것으로 봐서 일부 그릇은 신라가 자체 생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어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신라 고분시대의 유리가 주로 후기 로마 글라스에 속한다고 한다면,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 유리 제품은 대부분 동양계의 연유리로 판명된다. 이는 중국 불교의 영향으로 유리로 만든 사리 기(사리를 놓아두는 용기)를 모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리는 불교문화의 성쇠에 따라 고려시대까지 활발하게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려시대 이후 사리 용기가 점차 청자로 대체되는 것을 보아 귀중 공예품으로서 유리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여러 이유로 고려 이후 우리 전통 유리공예는 사실상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화려했던 삼국시대의 유리 기술과 예술적 성취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열기와 냉기로 유리를 빛다

공예로서 유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다루기 까다롭지만 무한한 가능성 역시 지닌다. 과학적 지식과 경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형태를 완성한 후에 가마에 넣고 하루 정도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의도대로

작품이 나오지 확인하기 힘들다. 끝까지 긴장을 풀어놓을 수 없는 작업인 것이다. 즉 정교함과 섬세함을 빼고 유리공예가의 일을 설명하기란 무척 힘들다. 유리공예의 기법은 다양하다. 보통은 입으로 불어서 형태를 만드는 '블로잉(Blowing)'을 떠올릴 것이다. 유리공예를 대표하는 블로잉 기법은 섭씨 1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녹아 액화 상태인 유리를 파이프에 찍어서 풍선처럼 불어가며 빠르게 모양을 잡는다. '램프워킹(Lamp Working)'은 토치 램프로 유리 조각이나 막대를 녹여 구슬이나 장신구 등 섬세한 표현이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샌드 캐스팅(Sand Casting)'은 특정 형상의 딱딱한 몰드에 가마 안에서 녹인 유리 가루를 넣어 형상을 떠내는 것. 자유롭게 질감과 양감, 색 등을 표현할 수 있다. 한편 '퓨징(Fusing)'은 팽창률이 맞는 판유리 혹은 유리 봉을 잘라 원하는 형태로 구성된 후 이를 가열하여 서로 녹여 붙이는 방법으로, 자유롭고 복잡한 문양과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차가운 상태에서 작업하는 '콜드 워킹(Cold Working)' 등 다양한 기법이 있으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창의적인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다. 유리의 매력은 재질 자체의 모순적인 속성에 있는 게 아닐까? 열을 가하면 녹아서 힘을 가하는 대로 움직이고 변형되지만, 식으면 단단해져 힘을 가하면 깨지고 만다. 연약하면서도 한없이 강하다. S

떡에 새긴 절실한 소원 Earnest Wishes Etched into Ddeok (Rice Cake)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옛말처럼 우리 조상들은 떡 한 조각에도 멋스러운 문양을 새겼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삶의 간절한 소망까지 담은 섬세한 예술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통영시립미술관, 강릉 오죽헌시립미술관, 이종근 도음 주신 곳 갤러리 LVS

떡은 우리 민족의 명절과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비롯한 각종 의식과 축일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식이다. 떡을 만들어 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고 이웃과 나눠 먹으며 그 의미를 더했다. 절기마다 제철 재료로 떡과 인절미, 절편 등을 주로 만들었는데 절편은 잘 굳지 않아 먼 곳으로 선물을 보낼 때 주로 이용하고, 떡살로 무늬를 찍어내었다.

떡살에 새겨진 문양은 의식과 축일의 의미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달리 새겼다. 돌이나 생일, 회갑상에는 장수를 뜻하는 거북, 십장생 문양을 찍고, 혼례 때는 다산과 장수를 상징하는 포도, 석류, 나비, 박쥐, 기러기 등을 썼으며, 문자로는 기쁨을 배로 한다는 쌍희(囍) 자를 쓰기도 했다. 또 제례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편안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꽃이나 별자리, 윤회사상을 담은 수레바퀴 같은 문양을 새겼다. 각 집안의 필요에 따라 떡살이 만들어지다 보니 기문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사대부 여인들은 가문에서 사용하던 떡살을 혼수품으로 챙겼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떡살은 나무로 제작된 직사각형의 떡살로 나무 면의 크기에 따라 다른 문양이 있어 여러 개 나눠어 한 번에 다양한 문양을 찍을 수 있다. 작은 손잡이가 달린 도장 같은 형태의 원형 떡살은 기하 문양이나 국화 문양 등의 단독 문양으로 이뤄지고 소재는 나무뿐만 아니라 백자나 분청 사기로도 많이 제작되었다. 통영시립박물관과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소장품인 두 가지의 백자 떡살은 원형 떡살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열십[+] 자로 4등분하여 각각 일정한 간격으로 새겨진 문양이 안정감을 준다. 한편 전통 떡살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문평 작가의 떡살은 묵직하면서도 모던한 세련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썩씨 1280도의 가마에서 고밀도로 수축된 도자기 떡살은 차들같이 단단하고 매끄러운 표면과 더불어 즐 무늬 상감과 문양을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 섬세하고 견고하다. 떡살로의 쓰임 이외에 문진으로 일상의 곁에 두어도 아름답다. S

Ddeok (rice cake) is indispensable when it comes to various rituals and ceremonies, not only as part of some of our traditional holidays in Korea, but also in traditional coming-of-age ceremonies, wedding ceremonies, funeral rites, and ancestral rites. Our ancestors would make Ddeok during banquets, birthday parties, and traditional holidays to bring good fortune, and share it with their neighbors to add more significance to whatever occasion they were celebrating.

Different patterns were used on rice cakes, depending on the type of ritual or ceremony the Ddeok was made for. Our ancestors used patterns that featured tortoises and 10 traditional symbols of longevity for the first birthday party of a baby or the 60th birthday party of a person. Meanwhile, in wedding ceremonies, they used grapes, pomegranates, butterflies, bats, and geese, all of which symbolized fecundity and longevity. Also, for weddings, our ancestors combined two Chinese characters referring to "joy" as a wish for twice as much joy and happiness for a newlywed couple. During ancestral rites, lotus flowers, star constellations, or patterns representing the wheel of samsara (reincarnation) was used to wish the deceased a comfortable afterlife.

Two circular, white porcelain rice cake pattern molds showcased at the Tongyeong City Museum and at the Ojukheon Municipal Museum in Gangneung are excellent examples of circular rice cake patterns that our ancestors used in the past. In particular, the circular surface, divided into equal quadrants, and the patterns, engraved in even intervals, add stability to the entire pattern. Meanwhile, rice cake patterns created by artist Moon Pyeong (a contemporary take on traditional patterns) offer a weighty, yet modern and sophisticated feel.



백자 떡살 (좌) 광복 이후 (우) 조선시대



떡살, 문평 작가



‘여백’과 ‘자연스러움’의 애티튜드

방 송 인 마 크 테 토

하늘이 저만큼 높아지고, 유난히 파랗고 맑게 쏟아지는 가을의 시작. 좋은 날씨인 만큼 북적이는 북촌 한복판을 지나, 마크 테토의 한옥 ‘평행재’에 이르렀다. 방금의 떠들썩함이 순간 무언가에 흡수된 것처럼 고요하다.

글 민소연 사진 오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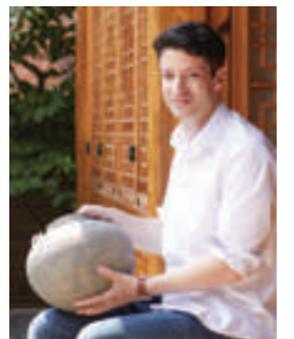
마크 테토는 JTBC에서 방송된 <비정상회담> 등으로 익숙해진 방송인이자 기업인이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 진중한 통찰과 함께 그를 설명하는 것은, 한국 전통 예술과 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애정. 미국 컬렉터의 손에 있던 우리 수막새(목조 건축물 지붕의 기왓골 끝에 사용된 기와, 다양한 무늬로 장식한다)들을 직접 사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정도다. 자국민이라 해도 쉽게 행동으로 옮길 일은 아닐 터.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 어디에서 온 것일까? 마크 테토는 모든 것이 ‘한옥 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한옥에서 산 것도 이제 4년이 됩니다. 한옥에 대한 지식이나 조예가 있어서 선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집을 처음 보고는 한눈에 좋아져서, ‘한옥에 한번 살아볼까?’ 하게 됐죠. 뉴욕에서도, 처음 한국에 와서도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지금 삶의 형태가 아파트와는 무척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집이 출근을 하거나 외출을 위한 중간 과정의 공간일 뿐이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는, 의미가 갖들어 있지 않은 곳이니깐요. 그래서 자꾸만 바깥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한옥에서는 집 자체가 세계 큰 의미입니다. 오히려 바깥의 여러 사정들을 툭툭 털어주고, 온전한 제 자신으로 있게 하죠. 힐링의 공간이자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스승 같은 존재입니다.”

바쁜 출근길, 허둥지둥 나와서 문을 닫으면 저절로 잠기는 아파트의 편리함이 한옥에는 없다. 창과 문이 많은 마크 테토의 한옥은 하나하나 손으로 나사를 돌려 문을 잠그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아침마다 불편하다고도 생각했지만, 그 5분의 여유가 하루를 시작하는 일종의 의식, 혹은 명상처럼 되었다. 조급함을 벗어나 삶을 관조하는 자세를 선물처럼 안긴다. 선물은 그뿐만이 아니다. 미처 몰랐던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미감도 얻었다.

“처음 이사를 올 때 가구를 한꺼번에 사서 놓아봤어요. 하지만 이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더군요. 하나씩 이 집에 어울리는 물건들을 찾고 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옛 문화 예술, 고가구, 공예품 등에 다다르게 되었죠. 그것을 지금 새롭게 구현하는 현대 작가들도 알게 되었고요. 특히 구분창 작가의 도자기 사진 작업이 무척 마음에 들어 액자를 사고 병풍도 들었죠. 집에 앉아 바깥을 보면 옆집과 그 옆집으로 이어지는 지붕이 참 신기하고 예뻐요. ‘이게 뭐지?’ 하고 알아보니 그것이 기와라는 걸 알게 됐고, 갖가지 무늬로 꾸민 막새를 모으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미국에 있던 수막새를 들여오게 되었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저 건축 자재로 인식될 거예요. 실제로 기와가 문화재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예술 작품이라고 느껴져요. 그런 일련의 일들이 한옥에 살면서 벌어졌고, 경복궁 수문장으로 임명되는 과분한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여백’과 ‘자연스러움’으로 설명한다. 빈집이었던 한옥이 그 자체로 좋았던 이유는 ‘여백’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던 때부터 깊게 전해진 가치였다. 그 여백의 아름다움을 헤치지 않기 위해 했던 많은 노력이, 지금의 마크 테토를 만든 것은 아닐까. 충분히 화려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절제, 자연을 애써 가공하지 않고 원 모습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 마크 테토가 발견한 한국적 아름다움은, 우리가 지금 가장 아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어떤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S





이어가고 도전하는 예술의 장場

2019 설화문화전 <미시감각 : 문양의 집>과 설화아트

올해 설화문화전은 우리 민족의 미감이 깃든 전통 문양을 테마로 동시대 시각 예술가들의 다양한 모험과 창의적 시도를 펼쳐낼 예정이다. 꽃과 나비, 새 등 자연의 피조물을 담아낸 전통 문양이 또 어떤 새로움을 만나 다시 태어날까?

에디터 민소연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지금에 연결하는, 항상 젊고 새로운 도전, 우아하면서도 도전적인 통섭... 설화문화전이라 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다. 설화문화전은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가치를 섬세하게 살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한국의 미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설화수의 문화 메세나 활동이다. 2003년 전통문화 후원을 위해 발족한 ‘설화클럽’을 시작으로 지금에 이른다.

전통과 지금이 이질감 없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서로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순간이야말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문화가 피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사람과 자연, 문화가 상생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어온 설화문화전은, 그동안 수많은 전통의 미감을 특히 젊은 세대(그리고 기성세대 역시)가 자유롭게 느끼며 소통하는 너른 마당이 되었다. 한편 올해부터 시작하는 설화아트는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장을 열, 설화수의 또 다른 야심찬 도전이기도 하다.

2019 설화문화전 <미시감각 : 문양의 집>

올해 2019 설화문화전은 ‘전통 문양’이 중심에 있다. 10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의 테마는 <미시감각 : 문양의 집>이다. 미술사에 있어 문양은 인간 의식의 반영이자 정신 활동의 소산으로 평가된다. 조형 미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내재되어 있는 동시에, 생활 미술로서 집단적인 가치와 정서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진다. 즉 문양은 그것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종의 약속된 부호, 기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슬한 변화가 닥쳐와도 대개 유효하다. 쉽게 사라지거나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통 문양은 긴 시간의 간격을 하나로 연결해 매듭짓는, 소중한 가치이자 훌륭한 메타포가 될 수 있다.

2019 설화문화전에서는 이처럼 오랜 시간, 하나의 단단한 약속이자 상



2019 설화문화전 <미시감각: 문양의 집>

일시 2019년 10월 18일~12월 29일
 장소 울산 아모레퍼시픽 본사
 문의 www.sulwhasoo.com

징이 된 꽃과 나비, 새 문양을 중심으로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온 전통 문양을 재조명한다. 선인들이 생활공간을 꾸미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던 화조도와 호접도 병풍에서 모티브를 얻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새롭게 탄생한 전통 문양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현대적 공간 '집' 안에서 만나볼 수 있다.

디렉터 2인을 주축으로 인테리어와 패브릭, 멀티미디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등 각 분야의 여덟 팀이 선보이는 전통 문양 기반의 작품들이 '문양의 집'을 채운다. 이는 옛 시절 문양이 그러했던 것처럼, 현대 일상의 공간에서 문양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험하고 직접 체험하는 귀한 기회다.

'문양의 집'을 방문하다

이제 '문양의 집'으로 들어가볼까? '문양의 집'은 리빙룸, 다이닝룸, 베드룸, 파우더룸, 그리고 라이브러리로 구성된다. 먼저 겹겹이 층을 이룬 게이트를 지나 어두운 복도를 지나면 리빙룸에 다다른다. 아주 일상적인,

우리에게 익숙한 '거실'이라는 공간이 문득 낮은 풍경으로 다가온다. 해체적이고 상승적으로 재구성한 가구, 의상, 식물, 화면 등 리빙룸의 각 요소들이 화려한 문양과 하나인 듯 어우러진다. 리빙룸 한쪽 벽 호접도 10폭 병풍 원본이 전통과 현대, 원본과 재현 사이 미학적 긴장을 일으킨다.

다이닝룸은 미각과 후각이 지배한다. 바닥과 천장, 벽은 물론 도자기와 장식장 등 모든 요소가 백색으로 마감되어 디테일한 장식만이 남는다. 이는 다이닝룸에 놓인 미디어 퍼니처인 테이블의 영상에 더욱 집중하게 한다. 움직이는 영상으로 표현한 문양들이 미각과 후각을 더욱 자극하며, 리빙룸에서 보았던 문양과는 또 다른 시간성과 그 풍경을 바라보게 만든다.

베드룸은 어둡다. 벽 한 면을 차지하는 '화조영모도' 10폭 병풍에 등장하는 새들은 베드룸 곳곳에 존재한다. 천장에 늘어뜨린 반투명한 패브릭에는 새들의 자취가 신비롭게 드러나거나 사라지고, 환영 같은 잔상을 남긴다. 침구류 위 수놓인 전통 문양 역시 흐릿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2019 설화문화전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파우더룸은 본래 기능과



호접도10폭병풍 / 이경승 / 20세기 초 /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화조영모도10폭병풍 / 19세기 / 아모레퍼시픽미술관



1



4



2



3

1 김현희 '호접몽(Dream of Butterfly)' 2 Hazel Baek '부귀 / 화목_기쁨' 3 박정혜 '민화 속, 새를 만나다' 4 송창애 'WATERSCAPE_연과 연(蓮과 緣)'

상징을 화려한 색깔과 향기, 문양으로 한껏 표현했다. 공간 가운데에 위치한 경대와 큰 원형 거울, 섬세하게 놓인 실란 컬렉션과 실란 콤팩트는 칠보 전통 장인의 숨씨가 깃든 공예품으로, 문양이 갖는 미시적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구와 의지가 문양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는지, 패션과 공간디자인과 전통 공예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문양으로 둘러싸여 거울을 통해 역시 문양으로 꾸며진 자신을 발견한다. 벽장 속 전통 문양 드레스는 공간과 패션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다. 로비에서 떨어져 APMA 캐비닛에 별도로 자리 잡은 라이브러리는 선반으로 벽과 지붕을 디자인한 박공 형태의 집이다. 선반에 빼곡한 책들이 하나의 상징적 문양을 완성하는 입체 구조물이기도 하다. 라이브러리 내부에서는 문양 서적이나 전시 메이킹 영상을 계단식 좌석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관람객은 문양 노트를 손수 구성해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새로운 예술 매체, 설화아트

올해 첫 해를 맞이하는 설화아트는 전통의 가치를 구현하는 예술가를 후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조명하면서, 전통을 뉴트로(Newtro)한 문화 트렌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설화수의 예술 캠페인이다. 전통을 재해석한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하여 설화수 인스타그램 컬처 계정 (@sulwhasoo.culture)과 카카오갤러리, 네이버포스트(비주얼다이브), 설화수 매거진 등 여러 플랫폼에서 전시한다. 이곳에서는 작가의 작품 뿐만 아니라 티저 영상과 인터뷰 영상도 만날 수 있다.

설화문화전이 특정 기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다면, 설화아트는 전통과 현대가 만나 이루는 통섭의 가치를 디지털과 인쇄 매체 등을 넘나들며 구현하는 거대한 확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감으로 느끼는 축제와도 같은 설화문화전의 매력과 일상의 예술화를 실현하는 설화아트는 서로 보완하고 때론 자극하면서, 설화수가 추구하는 고귀한 가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그 시너지가 만들어낼 무수한 가능성을 기대한다. S

삶을 음미하는 유유한 시간

고려 말기 충신 정몽주는 “차 마시는 습관으로 시름을 잊는다.”고 말했다. 차를 음미하며 고요해지는 오묘한 경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다시 차를 마시자.

에디터 박효성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뷰로 드 플로리아)



한국 전통 상감기법을 재해석해 도자 표면에 금을 상감으로 장식한 양자운 작가의 찻잔과 다관은 품격 있는 찻자리를 선사한다.



코발트색 도자기와 백자 잔에 은을 입히고 모던한 장식을 더한 은찻잔 세트는 이세용 작가 by 해브빈서울.



경재 정선의 자화상인 '독서여가도'를 도자로 표현한 전하람 작가의 다구 세트. '독서여가도 테라피'라는 이름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감성을 전한다.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고 가만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소란스러운 일상을 살아내기 위한 보약 같은 일이다. 온기와 향기를 머금은 차는 고요한 치유의 시간으로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된다. 녹차, 홍차, 보이차 등 차의 종류는 상관없다. 무엇이든 물을 끓이고, 식힌 후 차를 정성껏 우려내어 작은 찻잔에 따라 마시는 건 매한가지라 어려워 할 이유가 없다. 혼자 마시면 마음의 찌꺼기를 비울 수 있고, 여럿이 즐기면 다정한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인다. 그럼에도 차를 가까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 차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일 것이다. 차를 즐기기에 적합한 도구들이 필요하지만 거창할 필요는 없다. 찻잔, 다관, 숙우 정도면 충분하다. 찻잔도 여럿이 마시지 않고 차를 처음 시작한다면 한두 개만 갖추어도 된다. 차의 향과 맛을 모아 우리는 다관은 주전자 모양이지만 주전자보다 훨씬 작다. 용량이 크면 차의 맛과 향이 흩어져서다. 차를 우리기에 적합한 물 온도인 70도 정도로 식히거나 찻물이 진해지지 않도록 옮겨 담는 그릇인 숙우는 주둥이가 있는 컵으로 대체해도 된다. 차와 함께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다도는 이렇게 소박하고 정갈하게 시작해도 더할 나위 없다. S



전통 시물을 도자기로 재현하는 김별희 작가의 개다리 도자기 소반과 황피형 손잡이 다관.



고운 색을 옷칠로 입혀 인체에 무해하고 나무 소재의 가벼운 찻잔은 남송 박강용 옷칠 장인 by 서울번드.



찻잎이 부서지지 않도록 담아내고 찻자리를 화사하게 빛내주는 꽃봉오리 차시와 연꽃잎 차시는 코흐.



푸른색 포도 그림이 찻물의 수색에 아른거리는 각진 굽이 높은 백자 고죽잔은 김상인 작가.



말의 꼬리털로 만든 고운 마미체의 망과 대나무, 옷칠로 제작한 차 거름망은 챔터원.



꽃봉오리 같은 우아한 형태미가 돋보이는 실버 티포트는 주소원 작가.



차도구를 보관하거나 휴대할 때 유용한 백자 다관과 찻잔, 이들을 담은 검은색 원형 도자 합 세트는 모두 김별희 작가.



사계의 꽃을 채색으로 그려 찻자리를 화사하게 채워주는 회화잔 세트는 성석진 작가 by KODF갤러리샵.



파스타 냄비에서 영감을 얻은 재미있는 발상의 티 인퓨저는 일상에서 차를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챔터원.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윤조 라인



윤조에센스
 ● 윤조지향 ● 청이지향 ● 백화지향 ● 홍서지향 ● 흑어지향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설화수의 향으로 감성을 일깨우고, 피부 균형을 맞추는 저온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와 홀리스틱 케어를 선사하는 5가지 윤조에센스
 60ml | 90,000원대
 90ml | 120,000원대

윤조에센스미스트
 저온단™이 미세하게 분사되어 생기 있는 울퉁 피부를 선사하는 에센스 미스트
 50ml | 40,000원대
 110ml | 70,000원대

윤조마스크
 저온단™을 미세망 코트 시트에 담아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집중 밸런싱 케어 마스크
 5매 | 60,000원대

에센셜 라인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충실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발리고 밀끔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섬리안 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저온단™이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탄력 강화 크림
 75ml | 105,000원대

에센셜 퍼펙팅 라인



자음수 퍼펙팅
 사계절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해주고 촉촉함을 선사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퍼펙팅
 사계절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해주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꿔주는 영양 에멀전
 125ml | 63,000원대

탄력영양크림
 저온단™과 맥문동 추출물이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이고 영양을 공급해 사계절 탄탄하고 윤곽한 피부로 가꿔주는 탄력영양크림
 75ml | 110,000원대

수분영양크림
 메이크업에 강력한 수분과 풍부한 영양을 함께 전달해 막 찬 보습으로 속근까지 케어해주는 사계절용 수분영양크림
 50ml | 70,000원대

설린 라인



설린수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꿔주는 생기 베이스 스킨 캔디세너
 150ml | 75,000원대

설린에센스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피부의 생기를 깨우고 맑은 피부로 가꿔주는 생기 탄력 에센스
 50ml | 140,000원대

설린크림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외부 유해 요인과 피부 노화의 징후로부터 케어해주는 생기 탄력 크림
 50ml | 150,000원대

자음생 라인



자음생수
 귀하게 얻은 증삼수™가 농밀한 수분을 공급해 촉촉한 피부 바탕을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 80,000원대

자음생에센스
 농축된 인삼 에너지를 담은 미세 캡슐 진세나스피어™가 꼭 친 듯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캡슐 에센스
 50ml | 200,000원대

자음생유액
 귀하게 얻은 증삼수™가 메이크업에 탄력과 영양을 공급하는 안티에이징 에멀전
 125ml | 90,000원대

자음생아이에센스마스크
 인삼 안티에이징 결정체가 탄탄한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마스크
 8매 | 75,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힐링 및 매끈한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홍삼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0ml | 180,000원대

자음생페이셜오일
 귀한 인삼 종자유가 함유된 오일이 피부에 영양 윤기 장벽 케어를 선사하는 페이셜 오일
 20ml | 130,000원대

자음생크림
 강력한 인삼 결정체가 피부 자극과 방어력을 키워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강력한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신뜻한 질감)
 60ml | 250,000원대

자음생마스크
 자음생크림의 성분과 대를 캡슐 시트™가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크리미티 마스크
 5매 | 120,000원대

진설 라인



진설물렌징폼
 진한 거품이 개운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 폼
 150ml | 60,000원대

진설수
 피부 생명력을 강화하는 적소에 갠강, 마그네슘을 더해 피부에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 125,000원대

진설에센스
 강인한 적소에 진귀한 인삼 성분을 더해 탄력, 생기, 주름을 다각도로 개선해주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80,000원대

진설유액
 피부 생명력을 강화하는 적소에 해송자유 성분을 더해 윤곽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에멀전
 125ml | 140,000원대

진설아이에센스
 적소에 강인한 생명력과 골든아이케어마사지가 눈가 칙칙함과 부기를 케어하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아이에센스
 25ml | 27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고농축 적소에 박력 성분을 더해 눈가 피부의 힘을 길러주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고귀한 적소와 인삼의 강인한 생명력을 더해 피부의 힘을 길러주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470,000원대

진설마스크
 더운 날 이철 더욱 맑고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슬리핑 마스크
 80ml | 20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백토 성분 노폐물을 제거해 환한 피부로 가꿔주는 브라이팅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수
 지친 피부를 정돈해 주고 미백 효능을 끌어올리는 젤 타입 브라이팅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유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유연하고 맑은 피부 상태로 가꾸어주는 브라이팅 로션
 125ml |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 주는 브라이팅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기미·잡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변 유발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스팟 트리트먼트
 25ml | 130,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팅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팅 크림
 50ml | 135,000원대

자정토닝팩
 백상 성분을 담은 젤 포뮬러가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 바탕을 가꿔주는 브라이팅 마스크
 80ml | 65,000원대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촉각적으로 맑은 인삼과 탄력감을 선사해 주는 브라이팅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상백크림 (SPF 50+ / PA+++)
 피부 보호해 질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안티폴루턴 미백 선크림
 40ml | 75,000원대

수율 라인



수율크림
 시원한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꿔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다함설 라인



다함설크림
 단상과 홍삼이 젊음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 리서치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650,000원대

여운 라인



여운오일 5대지향 컬렉션
 ● 청이지향 ● 백화지향 ● 윤조지향 ● 홍서지향 ● 흑어지향
 귀한 한방 성분을 담아 피부에 깊은 영양 보습을 채워주고, 자연 소재에서 영감을 받은 설화수 5대지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라이트&라지 타입 페이셜 오일
 20ml | 85,000원대 (라이트 ● ● ● ● ● 라지 ● ● ● ● ●)

여운 라인



옥윤팩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필 오프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예물마사지크림
 크리미 오일이 조화를 이루며 편안한 문질되고 촉촉함과 활력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피민 마사지 크림
 120ml | 55,000원대

여운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 52,000원대

설인팩
 묵은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 팩
 80ml | 85,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 (리커버리)
 별들 생분이 손상된 입술 표면을 촉촉하게 매워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립 마스크
 10g | 45,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 (모이스처)
 찬공 당귀수, 대추 추출물이 매끈하고 윤기 있는 입술로 가꾸어주는 립 마스크
 10g | 45,000원대

스페셜 라인



명인보초앰플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의 힘을 보충하고 윤곽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8주 케어 안티에이징 앰플
 8ml x 4 | 200,000원대

에티크림
 빛 잘 윤으로 6~7차 존을 밝혀 하루 종일 풍력 있는 기세를 유지하는 빛 크림
 50ml + 20ml | 150,000원대
 튜브 20ml | 50,000원대

소선보크림 (TPF 40 / SPF 30 / PA++)
 빛과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 150,000원대

탄력네크림
 저온단™과 5가지 한방 오일로 영약한 목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꾸어주는 안티에이징 네크림
 60ml | 180,000원대
 240,000원대

백옥 보석 마사제
 얼굴과 목, 바다까지 마사지를 해 리프팅 케어와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100% 백옥 마사제리더 케어 크림
 240,000원대

클렌징 라인



궁중비누
 홍삼진액의 향산화 효능으로 매끄럽고 생기 있는 피부를 선사하는 40일 숙성 프리미엄 한방 비누
 100g x 2 | 45,000원대

순행클렌징워터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밀끔히 없애주는 촉촉한 저자극 수분 클렌징 워터
 200ml | 38,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신뜻한 사용감의 오일이 노폐물과 메이크업 잔여물을 물론 미세먼지까지 없애주는 수분 탄력 클렌징 오일
 200ml | 42,000원대

순행클렌징폼
 수분을 가득 머금은 거품이 피부 노폐물을 물론 미세먼지까지 없애주는 미디드 리프팅 클렌징 폼
 200ml | 37,000원대

바디 & 헤어



트래를 키트 백은향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향과 섬세한 텍스처가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 감각적인 바스 타임을 선사하는 리서치 트래를 키트(헤어샴푸, 헤어컨디셔너, 바디워시, 바디로션)
 50ml x 4 | 55,000원대

동백윤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핸드크림 5대지향 컬렉션
 ● 청린향 ● 백은향 ● 금요향 ● 홍과향 ● 흑진향
 귀한 한방 오일이 건조한 손에 깊은 보습과 윤기를 선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핸드크림
 40ml | 30,000원대 (라이트 ● ● ● ● ● 라지 ● ● ● ● ●)

핸드워시 백은향
 한방 오일과 고보습 젤 포뮬러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은은한 매화향이 기분 좋게 해주는 핸드워시
 300ml | 36,000원대

핸드워시 흑진향
 한방 오일과 고보습 젤 포뮬러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묵직한 풍부한 향이 활력을 선사하는 핸드워시
 300ml | 36,000원대

바디로션 백은향
 매화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고, 부드러운 감을 감싸 피부에 보습과 탄력 윤기를 주는 바디로션
 250ml | 60,000원대

바디워시 백은향
 매화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고, 미디드한 젤 포뮬러가 피부에 촉촉함을 남기는 바디워시
 250ml | 40,000원대

<p>메이크업밸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라이트 핑크 2호 라이트 퍼플 3호 라이트 그린  <p>메이크업밸런서(SPF 34 PA++) 피부 결과 피부 톤으로 밸런싱하는 메이크업 밸런서</p> <p>35ml 65,000원대</p>	<p>C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핑크 베이지 2호 미디엄 베이지  <p>CC유액(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 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p> <p>35ml 60,000원대</p>	<p>컨실러 스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미디엄 핑크 2호 미디엄 베이지  <p>에센셜 컨실러 스틱 부드럽게 도포되어 얼굴에 넓게 퍼져 있는 결장까지 한번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p> <p>5g 40,000원대</p>	<p>쿠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호 포슬린(핑크) 15호 아이보리(핑크) 17호 아이보리(베이지) 21호 내추럴(핑크) 23호 내추럴(베이지) 25호 샌드(핑크) 27호 샌드(베이지) 31호 하니(핑크) 33호 하니(베이지) 37호 캄베(베이지)  <p>퍼펙팅 쿠션 (SPF 50+ / PA+++) 오래 지속되는 기법과 미세한 커버와 촉촉하고 윤기 있는 마무리로 완벽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커버 윤기 쿠션</p> <p>15g×2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호 포슬린(핑크) 15호 아이보리(핑크) 17호 아이보리(베이지) 21호 내추럴(핑크) 23호 내추럴(베이지) 25호 샌드(핑크)  <p>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SPF 50+ / PA+++) 진주빛 광채로 맑고 화사한 피부빛을 선사하는 자정미백 쿠션</p> <p>14g×2 68,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호 베이비 핑크 13호 라이트 핑크 17호 라이트 베이지 21호 미디엄 핑크 23호 미디엄 베이지 25호 딥 베이지 33호 다크 베이지  <p>퍼펙팅 쿠션 인텐스 (SPF 50+ / PA+++) 질고 건조한 동안 빛을 위한 안티에이징 쿠션</p> <p>15g×2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p>	<p>피니시 파우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 소프트 화이트  <p>파우더 포 쿠션 피부 위에 공기처럼 세팅되어 밤금 메이크업한 듯한 산뜻함을 유지시켜주는 피니시 파우더</p> <p>8g 65,000원대</p>	<p>하이라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 레디언트 피치  <p>멀티 쿠션 하이라이터 피부에 생기 빛깔을 선사하는 펄 베이스 컴 하이라이터</p> <p>8g 40,000원대</p>	<p>에서 메이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p>에서 파운데이션(리퀴드) (SPF 15 / PA+) 3중 보호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p> <p>30ml 55,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p>에서 파운데이션(크림) (SPF 20 / PA++) 영양 크림을 바른 듯 매끄럽게 커버해주는 크림 파운데이션</p> <p>30ml 55,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p>에서 스킨케어(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p> <p>14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p>에서 트윈케이크 (SPF 30 / PA+++) 담담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p> <p>11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p>에서 파우더 섬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꿔주는 파우더</p> <p>20g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p>
--	---	--	---	---	--	---	--	--	---	---	--	--

<p>자정 메이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 화사한 색 ● 2호 자연스러운 색  <p>자정 에센스BB(SPF 50+ / PA+++) 하루 종일 맑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BB</p> <p>30ml 60,000원대</p>	 <p>자정 미백UV팩트(SPF 50+ / PA+++) 자외선과 유효성분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브라이트닝 팩트</p> <p>9g 60,000원대(리필 45,000원대)</p>	<p>쉬어 래스팅 메이크업</p>  <p>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 (SPF 25 / PA++) 쉬어 하이드라 포올러로 화사함을 선사하는 파운데이션</p> <p>30ml 58,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호 포슬린(핑크) ● 15호 아이보리(핑크) ● 17호 아이보리(베이지) ● 21호 내추럴(핑크) ● 23호 내추럴(베이지) ● 25호 샌드(핑크)  <p>쉬어 래스팅 젤 쿠션 (SPF 35 / PA++) 엘링 젤 텍스처와 마이크로 망으로 화사함을 선사하는 쿠션</p> <p>12g 58,000원대(리필 42,000원대)</p>	<p>진설 메이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p>진설 윤메이크업크림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p> <p>30ml 90,000원대</p>	 <p>진설 윤파운데이션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촉촉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p> <p>30ml 90,000원대</p>	 <p>진설 윤팩트 영양 파우더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p> <p>13.5g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p>	<p>레디언스 블러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 핑크 하모니 ● 2호 코랄 하모니  <p>레디언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핑크와 윤기 있는 피부 빛을 더해주는 얼디 블러셔</p> <p>10g 60,000원대</p>	<p>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 애플리웃 세럼 ● 2호 블러쉬 세럼 ● 3호 블러쉬 핑크 ● 4호 로즈 레드 ● 5호 블러쉬 코랄 ● 7호 딥 베리 ● 9호 글로우 오렌지 ● 10호 비버드 핑크 ● 11호 레디언트 레드 ● 12호 소프트 오렌지 ● 38호 서블 핑크 ● 59호 어텀 레드  <p>에센셜 립세럼 스틱 고보습 보호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꿔주는 데일리 립 케어</p> <p>3g 40,000원대</p>	<p>아이브로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호 라이트 브라운 ● 32호 예시 브라운 ● 34호 딥 브라운 ● 75호 다크 그레이  <p>아이브로우 퍼팩터 부드러운 핑크로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브로우 오토펜슬</p> <p>0.3g 20,000원대 (리필 14,000원대)</p>	<p>실란 컬렉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 은은한 색 ● 2호 차분한 색  <p>실란 콤팩트 일곱 가지 아름다운 보석의 빛깔을 담은 칠보 가법의 색채를 구현한 용기 디자인과 피부 본연의 매끄러운 결을 살려 주고 단아한 피부로 마무리해주는 프리미엄 콤팩트 파우더</p> <p>9g×2 180,000원대</p>	 <p>실란 컬러팩트 일곱 가지 아름다운 보석의 빛깔을 담은 칠보 가법의 색채를 구현한 용기 디자인과 은은하고 화사한 생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블러셔</p> <p>9g 180,000원대</p>	 <p>퍼펙팅 쿠션 인텐스 칠보 컬렉션 일곱 가지 아름다운 보석의 빛깔을 담은 칠보 가법의 색채를 구현한 용기에 담아낸 리미티드 퍼펙팅 쿠션 인텐스</p> <p>15g×2 85,000원대</p>
---	---	---	---	---	---	---	---	--	---	---	---	---

플래그십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p>윤조에센스 랜턴컬렉션 자율단 "이" 피부 윤기를 선사하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첫 단계 에센스</p> <p>60ml 90,000원대 120ml 150,000원대</p>	 <p>자음수 랜턴컬렉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적시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젤 타입 스킨</p> <p>125ml 57,000원대</p>	 <p>자음생유액 랜턴컬렉션 매끄럽게 발리고 알콜이 흡수되며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소프트 로션</p> <p>125ml 63,000원대</p>	 <p>자음생크림 랜턴컬렉션 인상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인상 안티에이징 크림</p> <p>60ml 250,000원대</p>	 <p>자음생크림 라이트 랜턴컬렉션 인상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인상 안티에이징 크림</p> <p>60ml 250,000원대</p>	 <p>매화지향 향유 백매화의 생명력을 담은 은은한 향으로 자진 피부와 마음에 에너지를 선사하는 오일 타입의 향수</p> <p>30ml 130,000원대</p>	 <p>윤조지향 향수 스프레이 나무의 따뜻함을 남기는 동양적인 우디 계열의 기쁨 있는 향이 담긴 향수 스프레이</p> <p>15ml×2ea 120,000원대</p>	 <p>매화지향 향수 스프레이 백매화의 생명력과 고귀함을 담은 향이 담긴 휴대가 간편한 향수 스프레이</p> <p>15ml×2ea 120,000원대</p>	 <p>윤조지향 향초 나무의 따뜻함으로 내면의 감성을 깨우는 기쁨 있는 향의 소이왁스 향초</p> <p>200g 100,000원대</p>	 <p>매화지향 향초 백매화의 고귀한 향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선사하는 소이왁스 향초</p> <p>200g 100,000원대</p>	 <p>공중비누 - 소나무 창랑한 소나무 향이 마음과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p> <p>100g 25,000원대</p>	 <p>공중비누 - 홍삼 깊은 한방 향이 활력을 선사하며 향산화 효능의 홍삼전액을 함유한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p> <p>100g 25,000원대</p>	 <p>공중비누 - 살구 싱그러운 살구 향이 기분을 전환시켜주며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p> <p>100g 25,000원대</p>	 <p>공중비누 - 매화 백매화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며 깨끗하고 청아한 피부로 가꿔주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p> <p>100g 25,000원대</p>
---	---	--	---	---	--	--	---	---	---	---	--	---	---

 <p>에센셜 밤 비드부터 헤이까지 철화수의 홀리스타틱 뷰티를 경험할 수 있는 멀티 보습 밤</p> <p>10g 40,000원대</p>	 <p>딤 릴렉스 밤 천연 성분으로 지친 피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릴렉스 밤</p> <p>10g 40,000원대</p>	 <p>립 틴트 밤 촉촉하고 부드러운 입술로 가꿔주는 보습 립 틴트 밤</p> <p>10g 40,000원대</p>	 <p>홍삼발효차 제주 산-나무의 속성향 후 발효차에 귀한 홍삼을 블렌딩한 발효차</p> <p>1.5g×10ea 25,000원대</p>	 <p>매화차 눈 속에서 피어나 봄의 희망을 전하는 청초하고 우아한 매화를 담은 매화 허브티</p> <p>1g×10ea 25,000원대</p>	 <p>세탁 곡우 질기에 제주 차밭에서 채취된 어린 찻잎을 담은 전통 찻실차</p> <p>1.5g×10ea 20,000원대</p>	 <p>삼다연 제주영굴 제주 산-나무의 속성향 후 발효차에 제주 영굴을 대안 블렌딩</p> <p>1.8g×10ea 15,000원대</p>	<p>MEN</p>  <p>리프레싱클렌징폼 천연 파우더 성분과 조일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럽 겸용 클렌징폼</p> <p>150ml 30,000원대</p>	 <p>분운에센스 주름 탄력 칙칙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인디에이징 에센스</p> <p>140ml 73,000원대</p>	 <p>분운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인디에이징 로션</p> <p>90ml 52,000원대</p>	 <p>분운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씨 오일 성분과 고보습 인디에이징 크림</p> <p>40ml 90,000원대</p>	 <p>릴렉스 UV 프로텍터(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p> <p>50ml 40,000원대</p>	 <p>에센분앵플 천사와 홍삼이 활력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마시는 홍삼 앵플</p> <p>20g×30 170,000원대</p>
--	---	--	--	--	---	---	--	--	--	--	--	--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자음생에센스(5명)

농축된 인삼 에너지를 담은 미세 캡슐 진세니스피어™가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캡슐 에센스입니다.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탄력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음생크림(5명)

인삼의 뿌리와 줄기 꽃에서 얻은 안티에이징 성분이 피부 활력을 선사합니다. 인삼 결정체가 피부 재생력과 방어력을 강화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9년 12월 10일까지
- 증정 선물 자음생에센스, 자음생크림
- 당첨자 발표 2020년 겨울호 독자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9년 여름호 독자선물 당첨자 명단

본윤에센스(5명)

- 김태인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 김희경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 김혜옥 부산시 남구 분포로
- 손여정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
- 신근상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진설아이에센스(3명)

- 김슬아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
- 윤경식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 이혜연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READER'S REVIEW



아시아의 지혜로 아름다움의 문을 열다

방콕에 설화수 매장이 18곳이나 되다니 놀라웠습니다. 한방 화장품인 설화수가 덥고 습한 나라인 태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소식을 보니 가슴이 마구 뻑니다. 좋은 제품은 언어가 달라도 통한다는 진리를 설화수를 통해 새삼 깨닫습니다. - 손여정(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



여름의 묘약, 국수

건강한 재료의 시원한 국수 요리가 여름과 딱 맞아서 좋았습니다. 집에서 직접 해먹어보고요, '어우러지다' 칼럼에서 소개된 다양한 소품들을 아름다웠습니다. 대리만족 겸 아이쇼핑을 한 기분일까요. 독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질의응답 코너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지 제안합니다. - 신근상(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019년 여름호 당첨자 선물은 10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7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현대백화점 가든파이브점 02-2673-2133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분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032-430-1479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80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6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661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진주점 063-289-3176
-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5.07.01~2024.09.0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40861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 0 □ 4 □ 1 □ 5 □ 6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설화지혜(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피부 섬기기(1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新 장인을 만나다(1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공간미감(2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진너다(2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2. 누리다

설화인(3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어우러지다(4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풍경(5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보감(5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아름다운 기행(6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수를 말하다(6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공간(7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3. 익히다

배움의 기쁨(7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한국의 멋(8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아장(8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읽다(8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집 안 단장(9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자음생에센스 자음생크림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가을호 <Sulwhasoo>의 엽서 응모 마감은 12월 10일입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애독자엽서 추첨 이벤트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성별, 나이, 전화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애독자엽서 선물 발송 • 보유 및 이용 기간: 애독자엽서 응모 마감으로부터 3개월
 고객님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취급위탁을 받는 자: 누리원기획, 가이미디어 • 취급위탁을 받는 업무: 엽서 이벤트 참여자 확인 및 당첨자 게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엠펙화점 춘천점	033-257-4129
AK플러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롯데 김포공항 면세점	02-2669-6730
롯데 명동 면세점	02-759-6662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02-3213-3865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65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신라 장충 면세점	02-2230-3597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4488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T2 부띠끄	032-743-2151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T2	032-743-2168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신라 제주공항 면세점	064-720-0055
HDC 신라 용산 면세점	02-490-3351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10
신세계 강남 면세점	02-6288-0767
신세계 센텀 면세점	051-775-3141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5784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탑승동	032-743-5784
에스엠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1570
에스엠 인사 면세점	02-2120-6210.9
그랜드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0543
두타 동대문 면세점	02-3399-9236
동화 광화문 면세점	02-399-3123
한화 여의도 면세점	02-2136-2779
현대 무역센터 면세점	02-2142-6220
JTO 중문 면세점	064-766-9019

